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翻譯老乞大』의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 연구



2018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WANG MENGQI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翻譯老乞大』의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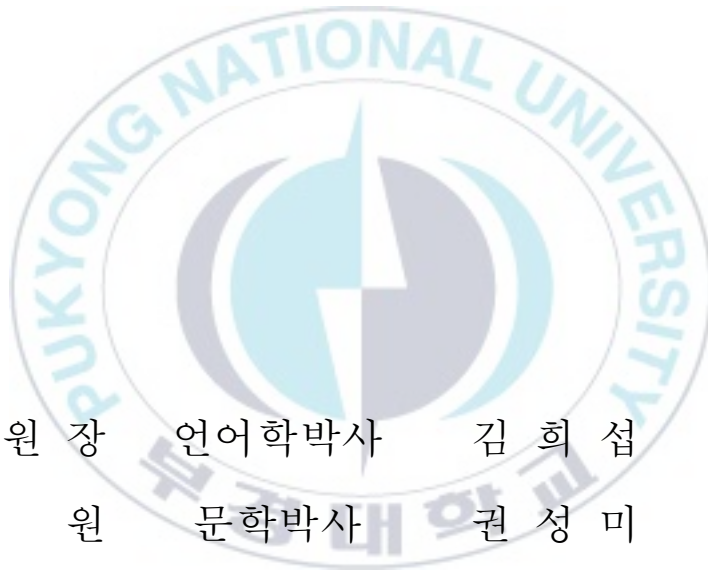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WANG MENGQI

WANG MENGQI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위 원 장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목차	i
*<표 차례>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번역노걸대』의 서지적 정보	1
2. 선행연구	6
3. 연구방법 및 대상	8
II. 한·중 피동과 사동 구문의 특징	10
1. 한국어 피동과 사동의 개념 및 유형	10
2. 중국어 피동과 사동의 개념 및 유형	18
III.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	27
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나타난 피동의 유형	28
1.1. 파생적 피동	30
1.2. 통사적 피동	32
1.3. ‘넙다/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	33
2.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의 번역특징	35
IV.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	40
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나타난 사동의 유형	41
1.1. 파생적 사동	41

1.2. 통사적 사동	51
1.3. ‘NP+히려(-시키다)+VP’의 사동	58
2.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특징	62
 V. 결론	 66
참고문헌	70
국문초록	76
중문초록	78



〈표 차례〉

<표 1> 한국어 피동의 유형	12
<표 2>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	16
<표 3>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	20
<표 4> 무표지 피동 1의 遭, 受, 挨등에 의한 피동표현	20
<표 5>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	26
<표 6>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의 번역유형	27
<표 7> 『번역노걸대』의 피동표현들	29
<표 8> 번역문에서 피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원문의 피동 구문	35
<표 9>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관계	38
<표10>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유형	40
<표 1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파생적 사동	43
<표 12>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통사적 사동	52
<표 13>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NP+히려(-시키다)+VP’의 사동	58
<표 14> 번역문에서 사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원문의 사동 구문	62
<표 15>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관계	64

A Study on the Passive and Causative Forms of the Translation in *Byeonyeok-Nogeoldae*

MENGQI WA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research on the passive and causative forms of the translation in *Byeonyeok-Nogeoldae*. It's translated by the famous Chinese scholar and translator *Choe Sejin*(최세진)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study on the passive sentences and causative sentences in Korean translation in the middle ages and the original Chinese corresponding to these passive sentences and causative sentences in the *Byeonyeok-Nogeoldae*.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Byeonyeok-Nogeoldae* are described in detail.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Korean and Chinese grammar, this paper reviews the passive and causative forms in the middle ages of *Byeonyeok-Nogeoldae*. This paper also summarizes the translation types of passive sentences and causative sentences in the medieval Korean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on the passive and causative forms of the translation of the *Byeonyeok-Nogeoldae* also shows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about the literatures that *Choe Sejin* translated.

We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syntax and grammar also can be found in the middle ages Korean. Over tim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pronunciation, writing, and grammar that became more and more beneficial to study and use in daily life. In this paper, we can also learn about the words and grammar of medieval Korean which are hard to see and learn in modern Korean language through the study of *Byeonyeok-Nogeoldae*.

In addition, we can also experience the feelings that had been experienced by the famous translator *Choe Sejin* when translating this book. He left many valuable works in the Korean dynasty, to translate these documents. They are not only familiar with the languages of the two countries, but also have a certain understanding of the local customs,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not only thinking of fully express the original meaning, also should consider how to make the translated sentences more simple and convenient to learn. These are all very difficult processes. Through the study of this paper, it can help peopl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is documents left by *Choe Sejin*.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part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Byeonyeok-Nogeoldae* and the related advance research, and determine the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opic.

In the second chapter, we discuss the concepts of passive sentences and causative sentences in modern Korean and Chinese an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both languages. I have explored the concept of Korean passive sentence and causative sentence, as well as the concept of Chinese

passive sentence and causative sentence. Then, I explained the types of passive sentence and causative sentence in Korean and passive sentence and causative sentence in Chinese.

The third chapter is about the research on passive forms in Korean translation in the middle ages of the *Byeonyeok-Nogeoldae*. First of all, it compares the original Chinese with the medieval Korean, and analyzed one by one all of the passive sentences that appeared in *Byeonyeok-Nogeoldae*. This paper summarizes the emergence of passive expression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text. According to the Korean and Chinese concepts of passiv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ssive sentences summarized in two languages that are explored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investigate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passive sentences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In the meantime, I looked at some examples of passive sentences in the original text but not passive in the translated text. Next, it summarizes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passive sentences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The fourth chapter is about the research on causative forms in Korean translation in the middle ages of the *Byeonyeok-Nogeoldae*. First of all, it compares the original Chinese with the medieval Korean. Then analyzed one by one all the causative sentences that appeared in *Byeonyeok-Nogeoldae*. This paper summarizes the emergence of causative sentences' expression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text. According to the Korean and Chinese concepts of causative sent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summarized in two languages that are explored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investigate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In the meantime, I looked at some examples of causative sentences in the original text but not causative in the translated text. After, I summarized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in the translation of *Byeonyeok-Nogeoldae*.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from the chapter first until the fourth. Conclusion is the last part of this paper.



I. 서론

1. 『번역노걸대』의 서지적 정보

『翻譯老乞大』¹⁾는 조선 중기에 저명한 한학자이며 어학자인 최세진²⁾이 고려시기부터 중국어 학습용 교재인 『老乞大』³⁾를 언해한 책이다. 이 책은 16세기 초에 간행되어 사역원 역과(譯科)의 교과서로 쓰이면서 역관들의 등용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상·하 두 권으로 된 木板本인데 上卷이 71張, 下卷은 73張이다. 이 板本의 명칭은 원래 『老乞大』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면 漢語本의 명칭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老乞大諺解’로 하면 重刊本과의 혼란이 생기므로 마침 『四聲通解』에 붙어 있는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란 기록에 의거해서 『翻譯老乞大』로 통칭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序·跋이나 刊記가 없어 정확한 年代를 알 수 없었는데 이 凡例로 인해 이 책이 적어도 『四聲通解』의 간행年代인 中宗12年(1517) 이전에는 완성되었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板本의 体裁는 句節 단위로 漢語의 원문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된 諺解문을 붙였는데 양자의 경계는 圈표(○표기)로써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 1) 『翻譯老乞大』는 1517년(중종 12)이전에 『老乞大』를 번역한 한어 학습서이다.
- 2) 崔世珍(1468~1542)은 世宗朝의 文臣 출신이었던 李邊, 金何, 申叔舟 등 저명한 譯學者들의뒤를 이어, 燕山朝와 明宗朝 사이에 文臣 출신으로 譯學에 큰 활약을 보였다. 당시 『中宗實錄』의 기록에 보면 崔世珍 외에는 承文院에서 漢語 吏文에 능한 자는 거의 없었으며 그 후계자도 全無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中宗朝 뿐만 아니라 朝鮮王朝 第一의 譯學者였다. 崔世珍은 『老乞大朴通事諺解』를 이어 中宗 12年(1517) 11월에 『四聲通解』를 편찬하였고 이후에도 中宗 22年(1527)에 유명한 『訓蒙字會』를 편찬하였으며, 中宗 27년에는 『翻譯女訓』을 進上하였다. 32년 12월에는 『小學便蒙』을 비롯하여 『諺解孝經』을 撰進하는 등 많은 귀중한 저서를 남겼다.
- 3) 『老乞大』는 고려시기 通文館과 조선 司譯院에서 사용한 한어회화교재이다.

원문의 각 한자 아래에는 한글로 正·俗音⁴⁾을 左右로 並記하고 있으며 諺解文에는 壬辰倭亂(임진왜란)⁵⁾ 이전의 국어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 이 시대의 국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上卷은 中央大 대학원에서, 下卷은 仁荷大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각각 影印한 바 있다.⁶⁾

『老乞大』라는 서명은 『中宗實錄』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老乞大』는 중국어 학습서로서 많이 이용된 책이므로 『번역노걸대』 간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문의 改修와 개수된 원문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져, 한문본 「노걸대」에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고 한글로 풀어 쓴 것이 언해본(諺解本)이며, 현전하는 「노걸대」 언해본으로는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평양판(平壤版) 「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의 다섯 이본(異本)이 있다.

북경(北京)을 도읍지로 한 요(遼) 왕조(916~1125)는 10세기 초부터 200여년에 걸쳐 만주 지역과 중국의 북부지역을 지배하던 몽골계의 거란(契丹)족이 세운 나라로 ‘거란(契丹)’을 북방 민족들은 ‘[Kitai, Kitat, 복수형은 Kitan]’이라 불렀고 이것이 요(遼)를 가르치게 되었다. 요(遼)가 멸망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여진족의 금(金)도 이렇게 불렀으며 원대(元代)에는 이 명칭이 더욱 일반화되었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가 명대(明代)의 『화夷역어(華夷譯語)』에서는 ‘乞塔·乞臺·奇塔’이었으며 ‘걸대(乞大)’는 이의 또 다른 표기로 보인다. ‘로(老)’는 중국어에서 ‘경칭(敬稱), 애칭(愛稱)’으로 쓰여서 ‘선생님’을 ‘老師’라고 하고 ‘老北京’을 ‘북경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노걸대(老乞大)』는 ‘중국통, 중국인씨’의 의미로 볼 수 있다.

4) 최세진이 『老乞大』의 한자에 한글로 중국 자음(字音)을 16세기의 중국 북방음과 『훈민정음역훈』의 속음(俗音) 두 가지로 적었다. 金希珍(1999), ‘최세진의 저서해설’, 새국어생활 제9권 71쪽 참조.

5) 조선 선조 때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일어나 7년간 계속된 전쟁이다.

6)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 범례 참조.

기존 연구를 통하여 국내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활용하는 『老乞大』의 주요 판본은 주로 『노걸대언해』와 『번역노걸대』임을 알 수 있다. 『노걸대언해』와 『번역 노걸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책 장 수에서 권상(卷上) · 권하(卷下)가 일곱 장씩 줄었고, 『번역 노걸대』에서 매엽행수가 9행이었다. 『노걸대 언해』에서 매엽 한 행이 늘었다. 어휘 및 표기의 면에서 명사형 어미‘-이’가 ‘-기’로(밥머기-밥먹기), 평음이 경음으로(사ᄃᆞᆫ-싸ᄃᆞᆫ, 구지람-꾸지람), 8종성에서 7종성으로(ㄷ-ㄴ)되었다든가 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번역노걸대』에서 보였던 방점 · △ · ○이 『노걸대언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 『번역노걸대』가 임진왜란 전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번역 노걸대』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의 생생한 대화체의 산 언어라는 점에서 국어사와 漢語(한어) 음운사 자료로 중시된다. 국어학자와 중국어학자들에 의하여 원문과 내용을 대상으로 어휘, 음운, 생활문제 등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문법관점에서 문장전체를 고찰하여 그 문장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번역노걸대』는 구어체로 된 문헌자료로 비록 번역체 문장이기는 하나 번역될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구어를 거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을 대상으로 삼아 당시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 표현의 특징을 고찰하여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최세진이 번역한 문장의 피동과 사동의 표현이 중국어 원문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 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피동과 사동의 체계와 당시의 피동과 사동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기저가 되는 『번역노걸대』 시기의 피동과 사동을 고찰하여 오늘의 한국어 피동과 사동의 변천과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대화를 나누는데 피동법과 사동법은 비교적 자주 쓰는 표현

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표현법을 일상에서 어느정도 사용했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번역노걸대』를 통해서 당시의 피동과 사동구문의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번역노걸대』의 중국어원문에 나타난 피동과 사동구문을 보면 각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동법>

1) 피동구문은 피동표지인 ‘被’(被一个賊到那里見了。[번노 上 p58:7] 흔도즈글 맞나 게 와 보고.)자와 ‘吃’(定然喫打三下。[번노 上 p13:1] 일딩 세 번 마조를 니브리라.)자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피동적 문장.

2) 피동표지가 생략되거나 없는 ‘어휘적 피동’(如今那賊現在官司牢里禁着。[번노 上 p64:5] 이제 그 도즈기 구윳 옥에 이셔 가텃느니라.).

<사동법>

3) 사동구문은 사동표지인 ‘教’(教那个伙伴來着。[번노 上 p119:2] 번역문: 더 버들 햏야 오게 햏라)자와 ‘着’(却着這裏的兩個, 替換回來。[번노 上 p117:1] 번역문: 밤쑹만 다듣거든 또 옛 둘홀 햏야 그라 도라오게 햏야.)자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적 문장.

4) ‘어휘적 사동’(爐著些火, 熱手腳。[번노 下 p80:6] 불 무희워 손발 데 워지라.) 등.

중국어는 고립어이기에 형태변화가 없다. ‘어휘적 피동’과 ‘어휘적 사동’이 문맥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지만 전치사 ‘教’자와 ‘着’자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피동(NP+‘教’나‘着’+VP)과 사동(NP+‘教’나‘着’+VP) 문장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전치사 ‘教’(教當值的學生背起, 打三下。[번노 上 p10:6]) 앞에 NP를 생략되는 경우 의미상으로도 피동도 되고 사동의 뜻도 가지고 있기에 구분이 어려

운 부분이 있다. 원문에서 이런 중의적인 특징 때문에 그를 언해하는 번역문에서 피동과 사동의 표현양상도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敎’자의 경우

1) 가. 원문: 敎當值的學生背起, 打三下. [번노 上 p10:6]

나. 번역문: 덕실선비의 하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2) 가. 원문: 休敎走了氣, 自然熟了. [번노 上 p43:4]

나. 번역문: 김 나게 말라, 즈연히 니그리라.

1)을 보면 ‘敎’자를 ‘하야’로 ‘하여금’을 번역하였고 2)에서는 ‘敎’를 번역하지 않았다.

‘着’자의 경우

3) 가. 원문: 休着出氣. [번노 上 p47:2]

나. 번역문: 김 나게 말오.

4) 가. 원문: 文契着誰寫? [번노 下 p39:3]

나. 번역문: 글워를 하야 쓰이료?

3)에서 보듯이 ‘着’자를 번역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着’자를 쓰인 4)에서 ‘着’을 ‘敎’자 1)과 같이 ‘着’를 ‘하야’나 ‘하여금’을 번역하였다. ‘敎’자와 ‘着’자로 시작하는 문장들의 이런 중의성이 있는 현상도 본 연구의 본론에서 각 예문과 함께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번역노걸대』는 고려 말 이래의 역관들이 활용하던 한어학습서로 사절의 왕래, 행려나 교역 중심의 회화집으로 이 책은 당시의 구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으로 국어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한·중 양국은 물론 일본의 학자들까지 근 반세기에 걸쳐 주로 음운학과 판본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노걸대』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오중갑(1978), 양태식(1980), 이병숙(1989), 박태권(1996), 梁伍鎭(1998), 김광조(2002), 양영희(2003), 주해영(2010), 권부경(2011), 원효봉·박용진(2011), 한미경(2012), 이순미(2014), 彭向前(2015), 김문영(2017) 등 많은 학자들이 『노걸대』의 성립연대, 언어특징, 문장 구조 등에 대하여 주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자음 표기 방식이나 음운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김무식(2003)은 『번역노걸대』의 표기와 음운에 대한 연구했으며, 신용권(2012)은 『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표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노걸대』에 나타난 문장구조와 어법에 관한 연구로는, 장숙영(2011)의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문장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劉性銀(2000)은 「老乞大」·「朴通事」 語法 研究가 있었고, 박태권(1981)은 『번역노걸대』의 물음법에 대하여 연구 하였고, 허성도(1987)에서 『중간노걸대』에 보이는 중국어 어법에 대한 연구 등 중세시기의 중국어와 국어의 언어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 『노걸대』와 『박통사』를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梁伍鎭(2010)에서 『노걸대』와 『박통사』에 보이는 속어 표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範魯新(2014)에서 『노걸대』와 『박통사』의 한어 보어 구조를 연구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번역노걸대』와 같이 『노걸대』의 언해류를 대상으로 삼고 언어와 번역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도 있다. 『번역노걸대』의 수량사(조미희, 2015)와 부사(한재영, 2015) 그리고 김문영(2017)에서는 『노걸

대』와 『박통사』 언해를 대비하여 중세 국어 언해서의 번역 특징을 연구한 것이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걸대』와 『박통사』로 대상으로 어휘대조, 번역 특징, 음운적 고찰 등 연구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문과 번역문을 대상으로 번역문에서 보이는 국어의 문법 양상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19세기에 이병숙(1989)에서는 16, 18세기 국역본의 사동문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박통사』와 『노걸대』의 사동문만 논의하였다. 또한 김형배(1998)에서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의 16세기 초기 국어의 사동사 파생과 사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초기 국어에서 사동사가 파생될 때 음운·형태적 조건에 맞추어 사동접미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조건을 찾아서 규칙화하였다. 그는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에서 수집한 모든 사동사의 목록을 사동접미사별, 그리고 어근말음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의 피동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번역노걸대』의 중국어 원문의 어휘가 한국어 피동과 사동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한중 피동과 사동을 연구 대상을 삼고자 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노걸대』의 원문 ‘敎’자와 ‘着’자는 피동과 사동 표현에 다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서 ‘敎’자와 ‘着’자가 쓰인 문장을 번역할 때 간혹 같은 번역문을 쓰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통사론에서 피동문과 사동문이 동일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번역노걸대』의 피동과 사동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는 『번역노걸대』를 중심으로 그 시기에 쓰인 한국말의 피동과 사동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번역노걸대』의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그의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구문의 양상 및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러나 국내외에도 『번역노걸대』의 원문의 피동과 사동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는 현대중국어 관점에서 피동과 사동의 개념 및 유형을 전제로 『번역노걸대』의 원문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번역노걸대』의 원문에 대한 현미경적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3.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대제각(大提閣)에 1986년에 발행한 『(原本)國語國文學叢林. 12』의 『翻譯老乞大 (上)』과 『(原本)國語國文學叢林. 23』의 『翻譯老乞大 (下)』를 기본 문헌으로 정하고 전체 『(原本)翻譯老乞大』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피동과 사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인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피동과 사동의 구문들을 먼저 목록화 하였다. 다음으로 『번역노걸대』에서 나온 피동과 사동의 양상 및 특징을 살펴서 그의 번역문에 나온 모든 피동과 사동표현을 ‘어휘적’과 ‘통사적’로 분류하였다. 번역문의 ‘통사적 피동’과 ‘통사적 사동’구문의 원문이 대부분 피동표지(被, 喫, 敎, 着)와 사동표지(敎, 着, 把)를 가진 문장들이다. ‘파생적 피동’과 ‘파생적 사동’이 대응하는 원문이 주로 피동표지나 사동표지가 생략하거나 없는 ‘어휘적 피동’과 ‘어휘적 사동’식의 문장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피동과 사동 그리고 이들과 대응하는 원문의 문장과 일일이 고찰하여 『번역노걸대』의 피동과 사동의 표현양상과 번역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연구목표로 정하였다.

이 책은 입말을 토대로 대화체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의 상인 한 사람이 중국의 지방을 장사하러 가는데 길을 가던 중 처음 만나는 중국인에게 “大哥,你從那里來?(형씨, 어디서 오십니까?)”와 같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왜 길이 지체 되었나 등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이다. 당시의 중국 일반

민중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훈 이야기나 방탕한 끝에 패가망신하는 버린 자식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서 내용은 더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대(元代)에 사용되던 보초(寶鈔)라는 지폐의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오늘날의 여행안내서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 책은 원대(元代)의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내용이 풍부하고 생활적 어휘와 고유어휘들이 대량으로 쓰인 회화체의 첫 번역 작품으로서 중세조선어연구와 번역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국내 국어학자들에게 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어 학습서로서의 『번역노걸대』는 다양한 상황 중심의 회화 장면을 담고 있다. 한어의 일상 대화를 당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세 국어의 쓰임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II. 한·중 피동과 사동 구문의 특징

인간은 사회 환경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려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 언어이다.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긍정문, 부정문, 사동문, 피동문, 복문 등의 다양한 문장구조가 있다. 문맥 속에서 행위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동과 피동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문장에서 행동주(agent)가 ‘엄마’이고, 피행동주(patient)가 ‘아이’라는 관계를 인식하고, ‘행위’의 주체가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동과 피동은 문장 내에서 행위자와 대상자간의 행위 관계를 명료화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하은진,2000:6)사동(causative)이란, 남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피동(passive)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 한국어 피동과 사동의 개념 및 유형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논의는 19세기말 서양학자 Ridet(1881)와 Underwood(1890)의 문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한국어 피동 표현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접사에 의한 피동 표현.

둘째, 피동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구성된 피동 표현.

그 후에 한국에서 유길준(1909)과 주시경(1946), 최현배(1937)등 문법 학자들에 의해 사동과 피동의 문법적 형태와 범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피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현배(1937)에서 처음 기술되었는데 그는 피동(입음)을 ‘월의 입자가 스스로 제 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남움직씨에 입음도움줄기 ‘히’ 또는 ‘기’를 더하여 입음을 만드는 법.

둘째, ‘하다 따위 움직씨’의 남움직씨에 쓰이는 법이니, 곧 ‘하다 따위 움직씨’를 입음으로 만들에는 ‘하다’에 입음의 뜻을 나타내는 제힘움직씨 ‘되다’, ‘받다’, ‘당하다’의 줄기 ‘되’, ‘받’, ‘당하’를 그 ‘하다’의 ‘하’대신에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것.

셋째. 입음법은 모든 움직씨의 감목법 어찌꼴 ‘아’에 도움움직씨 ‘지다’를 더하여 입음을 만드는 법.

또한 그는 피동의 의미를 ‘이해 입음(利害 被動)’, ‘할 수 있는 입음(可能的 被動)’, ‘절로 되는 입음(自然的 被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임홍빈(1978)은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만을 전형적인 피동으로 보고,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표현과 ‘-어 지다’, ‘-게 되다’에 의한 피동은 비록 그 의미가 피동적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론적이며 통사론적인 특성이 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과 다르기 때문에 피동문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중(1984)에서는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 표현은 인정하나, 그 밖의 ‘-어 지다’에 의한 표현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의 입음’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배희임(1989)에서는 일부 동작성 타동사 중에 ‘이, 히, 리, 기’에 의한 접사 피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어 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어 지다’에 부분적인 피동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인혜(1993)에서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피동 표현은 ‘이, 히, 리, 기’에 의한 접사 피동 표현이고, 그 밖의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표현이나 ‘어지다’에 의한 표현은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억(1970)에서는 ‘-어 지다’와 ‘-게 되다’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피동성을 보이는 반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최현배(1937)에 따르면서 의미상으로 피동성이 갖고 있으면 모두 피동으로 간주한다. 피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한국어 피동의 유형을 표로 작성하였다.⁷⁾

피동의 의미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
이해 입음(利害 被動)	‘이, 히, 리, 기’ 등에 의한 접사 피동
할 수 있는 입음(可能的 被動)	‘되다’, ‘받다’, ‘당하다’ 등에 의한 피동
절로 되는 입음(自然的 被動)	‘아/어 지다, -게 되다’에 의한 피동

<표1> 한국어 피동의 유형

예문(1)에서 한국어 피동의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1) ㄱ. 도둑이 잡히다. (이해 입음)

ㄴ. 오해되다, 오해받다, 오해당하다. (할 수 있는 입음)

ㄷ. 자꾸 가아 진다. (절로 되는 입음)

7) 양금평(2013),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쪽 참조.

한국어의 사동에 대한 연구도 전통문법 시대의 최현배(1937:387~388)에서 상세히 기술되었다. 그는 사동을 “월의 임자가 직접으로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이르는 이름이니라.”라고 정의하였고, ‘-이-, -리-, -우-, -기-, -히-, -구-’ 등에 의한 접미사 사동법, ‘-시키-’ 사동법, ‘-게 하-’ 사동법으로 분류하였다. 접미사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Shibatani(1973)은 한국어의 사동을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으로 나누고 의미적 측면에서 접미사에 의한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기본적인 차이를 동작주의 수에 두고 있다. 후자의 경우 동작주가 두 명인데 비해 전자는 동작주가 한 명으로 이러한 차이로 양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Shibatani(1975)는 접미사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동의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장에 대한 함의내용과 진리조건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하고 한국어의 경우 ‘아버지는 할머니에게/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에서는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함의하는 데 반해 ‘아버지는 할머니를 차에서 내렸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접미사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함의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규설(1974), 허웅(1975), 김일웅(1978), 김차균(1980) 등은 접사에 의한 사동사를 타동사로 보았다. 사동사에 대한 정의는 류성기(1993)에서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직접행위, 간접행위)를 가하여 피사동주에게 변화나 행위를 입히는 동사”라고 하였다. 김석득(1980)에 따르면 능격성을 갖고 있는 동사나 형용사만이 사동사를 파생시킬 수 있고, 주어의 의미소성과의 관계에서 행위나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능격성이 없다고 하였다.⁸⁾

A. 자연발생적인 것이거나 자연현상적인 것.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것은 자연현상적인 것)

B. 본능적인 것.

8) 박연옥(2012), ‘중·한 사동문의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참조.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갖는 본능에 의한 것)

C. 천재지변 따위 불가항력적인 것.

(홍수가 났다. 홍수는 불가항력적인 하늘의 재앙이므로 시킴의 주체가
없음)

D.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것.

(학생이 (자의로/자발적으로) 공부한다. 자의로 공부하는 것이므로
시킴의 주체가 있을 수 없음)

E. 1항 서술어가 재귀적 의사 자동사일 때, 2항 서술어가 재귀적인 동사일
때.

(그가 (그 자신을) 면도한다. 행위자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능격성
이 없음)

(그는 자신을 원망한다. 남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한 것)

위에 따르면 능격성의 기본적 제약조건은 사동이 되기 전의 문장에 있는 행
위나 상태의 의미소성에 있으며 이 기본적 의미소성에 의하여 접미사 계(접미
사 사동)나 도움움직씨 계(‘-게 하-’에 의한 사동)의 형태적 과정이 수행되어
나온다. 따라서 사동주나 피사동주의 성격은 유정성에 상관없이 주동문의 서
술어가 능격성을 가지면 사동문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동접미사 ‘-이-’를 피동접미사 ‘-이-’와 동일한 형태소로 쓰이는데, 박양규
(1978)에서는 사동과 피동의 ‘이’를 동일시 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
였다. 양동휘(1979)는 피동화 및 사동화 될 수 있는 모든 동사(100개)를 수집
하여 그 피동화와 사동화의 가능성을 필자의 직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접미
사가 붙어서 피동으로만 쓰이는 것이 12개, 사동으로만 쓰이는 것이 19개이고
나머지 69개는 피동으로도 사동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어에 있어
피·사 동접미사가 피동접미사로도 사동접미사로도 쓰임은 예외적인 우연한 현

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 -히-, -리-, -기-’ 등의 사동 접사가 피동 접사와 동일한 형태로 보았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았다.

(2) 那客人射的昏了, 蘇醒迴來。[번노 上 p62:2]

그 나그네 뺨여 어즐흐앗다가 썬야더니.

(3) 父母的名聲辱磨了時, 別人唾罵也。[번노 下 p105:5]

부똥 명성을 더러이면 늑미 춤 받고 꾸지즈리라.

(2)의 번역문에서 나온 ‘뺨여’는 ‘쏘이다’의 옛말이고(표준국어대사전) 접미사 ‘-이-’에 의한 피동이 된다. (3)의 번역문에서 나온 ‘더러이면’은 ‘더럽히다’의 옛말인데(표준국어대사전) 접미사 ‘-이/히-’에 의한 사동이 된다. 예문(2)와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번역노걸대』 시기의 옛말에서부터 접미사 ‘-이-’가 이미 피동접미사로도 사동접미사로도 쓰이는 현상이 보인다.

그 외에도 김영희(1985, 1993), 이광호(1988), 김정대(1989, 1990) 등은 접미사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통사적 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단문인가 복문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희(1993)은 문 쪼개기 현상, 부사어의 수식 영역, 보조 동사 ‘보다’의 분포 현상, 부정문 구성, 주어 존대 어미 ‘-시-’의 출현 현상으로 통사적사동문의 표면 구조가 복합문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기저에서 피사동주가 여격과 대격을 가질 때 통사적 사동문은 단문 구성이고 주격을 가질 때 통사적 사동문은 복합문 구성이라고 하였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사동 표현이 아주 보편적인데 그의 단문과 복합문을 대하여 본론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위에 따르면 한국어의 사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리-, -히-, -기-, -우-, -추-, -구-, -애-(없애)’의 ‘사동 접

미사'에 의한 '짧은 사동문'이다. 이를 통해서 만드는 문장이 '제1사동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는, 명사구 'NP'와 '하여금/시키다'의 결합인 'N-시키다'에 의한 '제2사동문'이다. 셋째는, 보조동사 '-게 하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이를 '긴 사동문'이라고 하고, '보조사동법'이나 '제3사동문'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어 사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한국어의 사동문 유형을 표로 만들었다.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
제1사동문	'-이-, -리-, -히-, -기-, -우-, -추-, -구-, -애-(없애)'등 사동 접미사에 의한 '짧은 사동문'
제2사동문	'N-시키다'에 의한 사동문
제3사동문	보조동사 '-게 하다/만들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동문

<표2>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

- (4) 엄마가 아이를 깨웠다.
- (5) 아빠가 그에게 일을 시켰다.
- (6) 교수님이 연수를 발표하게 하였다.

예문(4)(5)(6)에서 '깨우다', '일을 시키다' 그리고 '-게 하다'에 의한 실현되는 한국어 사동문의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현대국어의 피동과 사동의 이런 문법적 기능 및 구성방법은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도 이와 같은 피동과 사동의 문법 현상이 보인다. 예문(7)피동과 (8) 사동표현을 살펴 보자.

(7) 如今那賊現在官司牢里禁着。[번노 上 p64:5]

이제 그 도조기 구윳 옥에 이셔 가텃느니라.

(3) 父母的名聲辱磨了時，別人唾罵也。[번노 下 p105:5]

부뭇 명성을 더러이면 늬미 춤 받고 꾸지즈리라.

예문(7) ‘가티다-간히다’로 인한 형태론적 방법, 즉 피동접미사로 이루는 피동의 예이다. 위에 이미 언급한 예문(3)은 ‘더러이다-더럽히다’로 사동접미사로 이루는 사동의 예문이다.

(8) 教吃草。[번노 下 p99:7]

플 먹게 호고.

(9) 連其余的馬都染的坏了。[번노 下 p47:5]

다른 말조차 다 던섬 호야 히야디리로다.

예문(8)에서 ‘-게 호다’로 이루는 사동의 예문이고, (9)는 ‘히야디다-해어지다/못 쓰게 되다’로 이루는 ‘절로 되는 입음(自然的 被動)’에 속한 피동의 예문이다.

본 연구에는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부터 보이는 피동과 사동의 다양한 표현양상이 현대국어의 피동과 사동을 나타내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 지를 그리고 그의 관계와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번역노걸대』는 중국어 원문을 조선어로 번역한 자료이기 때문에 번역문의 문장에서 피동과 사동을 나타낼 때에 분명히 원문인 중국어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에 중국어의 피동과 사동을 함께 고찰하였다.

2. 중국어 피동과 사동의 개념 및 유형

중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관심은 20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어 피동문은 ‘의미상의 피동’과 ‘형식상의 피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피동문은 문장 안에 그 문장이 피동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식이 없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능동문과 구별이 잘 안 되고,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에 의해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형식상의 피동문에서는 피동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식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피동을 나타내는 표식으로는 ‘被(피)’가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피동문을 연구한 학자는 黎錦熙(1924)였다. 黎錦熙는 그 서술어로서 타동사를 사용한 피동문은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사람의 동작을 받는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하였다.⁹⁾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被’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본다. 실체사(實體詞)앞에 쓰일 때 ‘介詞(전치사)’가 되고 동사 앞에 놓일 때 피동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黎錦熙와 같은 시기의 학자 王力(1943)에서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주어가 받는 문장을 피동식’이라 하였는데, 피동식이 서술하는 주어에 대해 원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았던 일, 예를 들면 ‘화(禍), 손해(損害), 기편(欺騙)을 당하거나 혹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이라고 설명하였다.¹⁰⁾ 그는 ‘被’를 조동사로 보고, ‘被’ 외의 ‘叫’도 조동사로서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졌다. 또 행위자 말할 필요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주어가 무생물이고, 불리하거나 유쾌하지 않은 일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

9) 黎錦熙『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24. “凡述語用外動詞的被動式, 就不是敘述主語的動作了, 是說明主語被人家的動作設計的情形.”

10) 王力(1943:132), 『中國現代語法』, (王力文集 第二卷), 山東教育出版社. ‘凡敘述詞所表示的行爲爲主位所遭受者, 叫做被動式. 被動式所敘述, 若對主語而言, 是不如意或不企望的事, 如受禍, 受欺騙, 受損害或引起不利的結果等等.’

被'자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런 문장은 의미상 피동이라고 하였다.

근래의 중국어 학자인 呂叔湘(1942)은 본래의 의미가 '接受', '受', '挨'등인 종류의 동사가 문장에 쓰이면 그 문장의 주어는 동작이 끝나는 점이 되며, 이러한 문장을 피동문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呂叔湘은 피동문을 '목적어 + '被'+주어+동사'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被'외에도 '叫/教', '讓', '給', '由'등이 사용된다. 張志公(1953)에서는 중국어 문장에서 '被'를 나타내는 문장이 피동문의 한 종류이고, '挨', '受', '遭'등, 본래 '받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나타내는 문장은 '자동형식 적인 피동문'이라고 한다.¹¹⁾

한국어에서 명사에 '당하다', '받다', '맞다' 등이 붙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 표현들은 중국어에서 '遭, 受, 挨'등과 같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遭, 受, 挨'등 동사들이 명사구와 결합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遭, 受, 挨'등 동사들이 원래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휘적인 피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일부의 예를 제시한 것이고 또한 '당하다', '받다'로 표현하는 단어들은 '遭, 受, 挨'로 많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被'로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遭, 受, 挨'등과 같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표현되는 피동을 '무표지' 피동1에 속한다.

중국어에는 '주제(수취자)+주어(행위자)+동사'의 문형으로 한국어의 피동 표현으로 대응될 수 있는 피동 형식이 있다. 특히 문장의 주제가 무정 또는 추상의 수취자일 때, 비특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생략된다. 이때에도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표지는 없다. 이런 피동을 '무표지'피동2로 부르기로 한다.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11) 張志公(1953:115~116), 『漢語語法常識』, 中國青年出版社. '主語是受動者, 即動作的接受者, 這種句子是被動句.....'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	중국어 피동문의 구성방법	
어휘적 피동	무표지 피동 1	‘遭, 受, 挨’ 등 ‘받다, 맞다’의 뜻을 가진 동사
	무표지 피동 2	賣了, 治好, 등 ‘팔렸다, 치료되었다’의 피동성을 가진 동사
통사적 피동	전치사 또는 보조사로 이루는 ‘被’피동, ‘叫/教’피동, ‘讓’피동, ‘給’피동, ‘由’피동 등	

<표3>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

‘무표지’ 피동1에 의해서 나타난 피동의 표현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遭’류	‘受’류	‘挨’류
遭災 재해당하다	受處分 처벌받다	挨鞭子 채찍 맞다
遭受車禍교통 사고당하다	受責備 책망받다	挨拳頭 주먹 맞다
遭受變故 변고당하다	受壓迫 압박받다	挨巴掌 따귀 맞다
遭受挫折 좌절당하다	受引誘 유혹받다	挨凍 얼다
遭報復 보복당하다	受制約 제약받다	挨罵 야단 맞다
遭暗殺 암살당하다	受訓練 훈련받다	挨訓斥 훈계받다
遭流放 유배당하다	受保護 보호받다	挨槍子兒 총알 맞다
遭戲弄 희롱당하다	受感動 감동받다	挨刀 칼 맞다
遭恐嚇 협박당하다	受歡迎 환영받다	挨雨淋 비 맞다
遭嘲笑 비웃음당하다	受支配 지배받다	挨打 맞다
遭拒絕 거절당하다	受熏陶 감화받다	

<표4> 무표지 피동 1의 遭,受,挨등에 의한 피동표현

‘무표지’피동2는 다음 예문과 같이 들 수 있다.

(10) 房子已經賣了。

집은 이미 팔렸다.

(11) 他的病已經治好了。

그의 병은 이미 치료되었다.

(12) 那本書已經出版了。

그 책은 이미 출판되었다.

(13) 他說的話人人都理解了。

그가 한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예문(10)(11)(12)(13)를 보면 피동표지인 ‘被’, ‘叫/教’, ‘讓’, ‘給’, ‘由’등이 없어도 문장이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피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 ㄱ. 我被他偷了兩塊錢。

ㄴ. 我叫他偷了兩塊錢。

ㄷ. 나는 그에게 2원을 도난당했다.

예문(14)를 보면, ‘나는 그에게 2원을 도난당했다’라는 말이네, ‘被’자를 쓰면 물론 피동 표현이 되지만 ‘叫’를 사용한다면 ‘나는 그에게 2원을 훔치라고 말했다’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사동을 볼 수 있다.

(15) 秦朝叫他滅了。

진왕조는 한왕조에게 멸망당했다.

(16) 房子叫他燒了。

집이 그에 의해 불탔다.

(17) 他叫我傷心.

그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예문(15)와 (16)에서 ‘ㅁ’자가 이루는 문장을 보면, 사동의 의미가 전혀 없고 피동으로만 이해된다. 그러나 (17)에서 ‘ㅁ’자로 이루는 문장을 보면 피동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

『번역노걸대』의 원문에 피동표지 있는 문장이 ‘被’자로 쓰인 피동문의 예는 한 개만 있고, 나머지는 ‘敎’와 ‘着’만 나타났다. ‘ㅁ’로 쓰인 문장의 경우는 피동의미도 있고 사동의미도 가진 중의성이 있는데 반해 ‘ㅁ/敎’는 ‘被’자와 달리 원래 ‘부르다’, ‘불리다’, ‘시키다’, ‘가르치다’등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8) 敎當值的學生背起, 打三下. [번도 上 p10:6]

덕실선비 호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예문(18)를 보면, 번역문에서 사동이 해석되었지만, 의미상으로 원문의 ‘敎’자가 이루는 이 문장은 피동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의 3장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陳承澤(1922:73)는 가장 일찍이 사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타동사가 아닌 것이 타동사로 쓰여 ‘致然(치연: 어떻게 되게 하다)’이나 ‘以爲然(이위연: 무엇을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다)’의 뜻을 갖게 된다면 ‘致然’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것을 ‘致動用(치동용)’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¹²⁾고 하였다.

또 呂叔相(1942:92)는 사동에 대해 매우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고대중국어(文言)에서는 ‘使’와 ‘令(령)’을 致使(치사)¹³⁾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간주하고

12) 원문: “他動字以外之字, 變爲他動, 而特含有‘致然’或‘以爲然’之義者; 含‘致然’之意時, 謂之致動用。”

현대중국어(白話)에서는 ‘叫/敎(교)’ 등을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동사는 뒤에 따르는 목적어로 하여금 움직임이 생기게 하거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뜻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목적어 뒤에는 항상 동사가 하나 더 따른다”¹⁴⁾라고 사동에 대해 해석하였고 ‘使’ 자 사동문, 일부 ‘兼語句’, ‘把’ 자 사동문, ‘動結式’ 사동, 문 ‘以…爲’구문 의 5개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王力(1954:110)는 사동을 의미적으로 해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弄壞(고장나게 하다)’에서 ‘弄(농)’은 원인이고 ‘壞(괴)’는 결과로서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행위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그는 ‘使成式(사성식)’이라고 지칭하였다.

繆錦安(1990), 範曉(2000), 郭銳·葉向陽(2001)은 사동의 정의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는데 繆錦安(1990:42)은 사동을 “참여자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동작”을 사역 동작이라고 하였고¹⁵⁾ ‘使成式’과 어휘에 의한 사동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範曉(2000)은 사동은 어떤 사물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주체의 작용이나 영향으로 인해 동작행위, 활동상의 변화나 성격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¹⁶⁾ 객관 사실을 반영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致使’ 또는 ‘使役(사역)’이라 지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郭銳·葉向陽(2001)은 “사동 표현은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 형식”¹⁷⁾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사동 상황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을 포함하고 그 사건들은 작용과 호응의 관

13) ‘致使’는 한국어의 ‘사동’에 해당하는 용어로 논의의 편의상 이후 ‘致使’를 모두 ‘사동’으로 대체한다.

14) 원문: “致使句의 標準動詞在文言裏是‘使’和‘令’,在白話裏是‘叫(敎)’等字,這些動詞都有使止詞有所動作或變化的意思,所以後面不但跟一個止詞,止詞後面還要加一個動詞。”

15) 원문: “動作如引起動作者以外的參與者變化,這是使役動作。”

16) 원문: “某客體發生某種情況(包括動作行爲、活動變化、性質狀態等)不是自發的,而是受某種致使主體的作用或影響而引發的。致使主體對實體(致使客體)的作用或影響(導致某實體發生某種情況),用科學述語稱之,就是“致使”(或“使役”)”.

17) 원문: “致使表達指表達致使情景的表達形式。”

계를 갖는다.

沈陽·何元建·顧陽(2001), 彭利貞(1997)은 형태적 측면에서 사동을 서술하였다. 沈陽·何元建·顧陽(2001:69~159)에 따르면 사동문의 기본적인 통사 구조는 使動(사동: ‘무엇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하다’의 뜻 구조인데 이 문장은 사역동사를 하나 포함하고 사동주를 생성한다. 이 사역동사는 ‘使, 습’과 같이 형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영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¹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小孩使大夥兒笑了。

아이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20) 老師的話溫暖了我的心。

선생님의 말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21) 媽媽激動得流下了眼淚。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다.

예문(19)의 경우 사역동사는 ‘使’를 첨사시켜서 ‘使動句(사동문)’을 생성하는 것이고 (20)는 ‘溫暖了(따뜻하게 하다)’의 어휘에 의한 사동문이 된다. 또는 예문(21)에서 사동의 의미를 갖는 ‘V-得’ 구조의 사동문이다.

陳昌來(2001)은 ‘使令句(사령문)’, ‘致使句(치사문)’의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을 중심으로 그 통사구조를 분석하였다. 그의 논의에서는 ‘致使句’는 논항이 세 개인 문장으로 보았다. 즉 사동사는 사동주, 피사동주, 보어(보족어)의 세 개의 논항을 갖는다는 것이다. 範曉(2000)은 사동 의미의 명확 여부에 따라 사동문을 유표지 사동문과 무표지 사동문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使’ 자 구문, ‘V 使’ 자 구문, ‘使動’ 구문, ‘把’ 자 구문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후자는

18)원문: “使役句法的基本結構是使動結構, 它含有一個使役動詞, 並指派致事題元。使役動詞可以是一個實實在在的詞(使、令等等), 也可以是零形式。如果是前者, 句法生成的結果就是使動句; 如果是後者, 我們就可以得到詞的使動用法或者有使動用法的“V-得”結構。”

‘使令’ 구문, ‘V得’ 구문, ‘使成’구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 他使我振作起來。

그는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23) 這件事把我感動了。

이 일은 나를 감동시켰다.

(24) 他說得她抬不起頭來。

그는 그녀가 머리로 쳐들지 못하게 나무랐다.

(25) 武松打死了老虎。

무송은 호랑이를 때려 죽였다.

예문(22)와 (23)은 ‘使’자 구문과 ‘把’자 구문의 유형을 뜻하는 유표지 사동문이다. (24)와 (25)의 ‘說得(머리로 쳐들지 못하게 나무랐다)’과 ‘打死(때려 죽였다)’는 무표지 사동문의 ‘V得’ 구문과 ‘使成’구문의 예이다.

위에 언급한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어의 사동 표현을 크게 ‘어휘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으로 나누고 각각을 그 구조의 차이에 따라 더 나누었다. 어휘적 사동문에는 ‘무표지 사동문’과 ‘합성어 사동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표지 사동문’은 사동성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에 의해서 사동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표지 사동문’은 의미에 따라 불규칙의 사동문이 이루어진다. 어휘적 사동문의 또 하나는 ‘합성어 사동문’이다. ‘加, 弄, 放’등 단어의 뒤에 다른 자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합성 사동사’가 되고, 이를 통해 사동문을 만든다. 어휘적 사동문이 ‘무표지 사동문’과 ‘합성어 사동문’의 두 가지 종류를 나누는데 그중에 ‘무표지 사동문’의 의미에 따라 ‘무표지 사동문’(1)과 ‘무표지 사동문’(2)로 나누기로 한다. ‘무표지 사동문’(1)은 사동성을 가지는 타동사를 이용하여 사동의의미를 표현하는 사동문이고, ‘무표지 사동문’(2)는 사

람의 심리 활동이나 감정을 표시하는 부류이다. ‘통사적 사동문’은 전치사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것이다. 즉 ‘把’사동, ‘給’사동, ‘使’사동, ‘叫’사동, ‘讓’사동 등 있다.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었다.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	중국어 사동문의 구성방법		
‘어휘적’ 사동문	‘무표지’ 사동문	무표지 사동(1)	安神, 穩定, 改善...
		무표지 사동(2)	喜, 樂, 感, 迷, 醉, 氣, 惱, 恨, 煩, 愁, 焦, 羞, 急, 怕, 膩, 疼, 痒, 累, 熱, 冷, 渴, 餓, 酸, 臭, 喜歡, 感動, 迷惑, 害怕, 心疼, 着急, 難爲, 難受...
	‘합성어’ 사동문	‘加, 弄, 放’등 단어의 뒤에 다른 자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加寬(넓히다), 弄疼(아프게 하다), 放大(크게 하다)’등 ‘합성 사동사’로 만드는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把’사동문, ‘給’사동문, ‘使’사동문, ‘叫’사동문, ‘讓’사동문		

<표5>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

위 표를 보면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을 크게 ‘어휘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으로 분류하였다. ‘어휘적’ 사동문에서도 서술어인 동사가 스스로 사동의 뜻을 갖고 있거나 ‘加, 弄, 放’등의 ‘합성 사동사’를 이용하여 무표지 사동문과 ‘합성어’ 사동문으로 나누었다.

III.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피동 표현이 쉽게 찾을 수 있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피동들을 중국어원문과 함께 본다면 아래 <표 6>과 같이 3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중국어원문	중세한국어 번역문
I	피동 ○	피동 ○
II	피동 ○	피동 ×
III	피동 ×	피동 ○

<표 6>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의 번역유형

<표 6>을 본 바와 같이 『번역노걸대』에서 나타난 피동의 번역유형을 원문과 번역문에서 모두 피동이 된 유형I과 원문에서 피동이 되고 번역문에서 피동이 안 되는 유형II, 그리고 원문에 피동이 아니지만 번역문에서 피동이 되는 유형III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I ㄱ. 如今那賊現在官司牢里禁着。[번노 上 p64:5]

ㄴ. 이제 그 도즈기 구윳 옥애 이셔 가텃느니라.

유형 II ㄱ. 有一座橋塌了來，如今修起來了不曾？[번노 上 p55:8]

ㄴ. 혼 곧 드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터 잇는가? 몬흐얏는가?

유형 III ㄱ. 這的捱十年也坏不得。 「번노 上 p81:4」

ㄴ. 이거시 십년을 디나도 히야디디 아니흐리로다.

유형I의 예문을 보면 원문의 '禁着'이라는 동사 자체가 '감금당하다'의 피동성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어휘적 무표지 피동에 속한다. 중세 한국어인 번역문에서 '가타다' 즉 '갈히다'로 해석되며 파생적 피동이 되었다. 유형II의 예문을 보면 원문의 '修起'는 '수리되다'의 뜻이며 '치료되다'와 같이 피동의 뜻을 가진 동사로서 무표지 피동이 된다. 번역문에서 '고터잇는가'로 해석하여 다리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이는 피동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문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유형 III의 예문을 보면 원문의 '坏不得'는 '이 다리가 십년이 다녀도 무너지지 않다'의 뜻을 말하는데 주어인 '다리'가 어떤 동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상황을 서술하는데 중국어에서 피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억(1970)에서 한국어는 '-어 지다'와 '-게 되다'가 동사와 결합한 경우 '절로 되는 입음'이 되고 피동성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유형III의 번역문이 '히야디디' 즉 '헤어지다, 못 쓰게 되다'가 '절로 되는 입음'으로 피동성을 보인다.

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나타난 피동의 유형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피동을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와 같이 또한 몇 가지 유형과 특징을 보았다. 먼저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출현한 피동의 문장들과 그들이 대응하는 원문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중국어원문	피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피동 여부
那客人射的昏了, 蘇醒迴來。 [번노 上 p62:2]	○	그 나그내 <u>뵈여</u> 어즐흐얏다가 찌야더니.	○
又怕繩子紐着。 [번노 上 p79:1]	○	또 노히 <u>버물가</u> 저해라.	○
如今那賊現在官司牢里禁着。 [번노 上 p64:5]	○	이제 그 도즈기 구윳 옥에 이셔 <u>가텃느니라.</u>	○
這的捱十年也坏不得。 「번노 上 P81:4」	×	이거시 십년을 디나도 <u>히야디디</u> 아니히리로다.	○
連其余的馬都染的坏了。 [번노 下 p47:5]	○	다른 물조차 다 던섬하야 <u>히야디리로다.</u>	○
定然喫打三下。 [번노 上 p13:1]	○	일덩 세 번 마조를 <u>니브리라.</u>	○
我沿路來時, 好生多得他濟。 [번노 下 p21:6]	○	내 길 조차 올 시저리 3장 만히 더의 거리치를 <u>니부라.</u>	○
看那射着的弓手。 [번노 上 p64:1]	○	그 살 마즌 弓手를 보니.	○
若不救時, 傍人要唾罵。 [번노 下 p103:3]	×	흐다가 구티 아니하면 겨텃 사람이 <u>쵸</u> 받고 꾸지즈리라.	△
父母的名聲辱磨了時, 別人唾 罵也。[번노 下 p105:6]	×	부못 명성을 더러이면 <u>느미 쵸</u> <u>받고</u> 꾸지즈리라.	△

<표 7> 『번역노걸대』의 피동표현들

<표7>를 보면, 표기‘○’는 피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표기‘×’는 피동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표기‘△’는 중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被’자와 같은 피동표지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피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 7>에서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모든 피동구문을 정리하면서 피동구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현대국어의 피동문과 같이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보이는 피동구문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그리고 ‘넘다/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을 이

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그리고 ‘넘다/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들과 그들이 대응하는 원문과 함께 일일이 살펴보았다.

1.1.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은 현대국어에 말한 피동사에 의한 실현되는 피동 표현을 뜻한다. 즉 능동사(타동사)의 어근에 ‘-이-, -히-, -기-’등의 피동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된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이런 피동 현상이 다음과 같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가 붙어서 피동이 될 수 있다.

- (26) ㄱ. 那客人射的昏了, 蘇醒迴來. [번노 上 p62:2]
 ㄴ. 그 나그네 뺨이 어즐흐얏다가 씨야더니.
 ㄷ. 그 나그네는 화살을 맞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고, 다시 깨어났습니다.¹⁹⁾

(26. ㄱ)는 『번역노걸대』의 원문이고 (26. ㄴ)는 그에 해당되는 번역문이다. (26. ㄷ)는 그에 해당되는 현대 말 풀이이다.²⁰⁾ (26. ㄱ)의 중국어문장이 ‘射的昏了’에 의해 어휘적 피동의 무표지 피동²⁾에 속한다. ‘나그네’는 분명히 ‘화살’을 맞은 입장이므로 의미상으로 피동문으로 간주된다. (26 ㄴ)의 ‘뺨이’²¹⁾

19) 출처: 정광(2010), 『譯註 原本老乞大』. 뒤에 나온 현대 말 풀이부분이 다 이와 같이 참조함.

20) 가: 『번역노걸대』의 원문이고, 나: 그에 해당되는 번역문이다. 다: 그에 해당되는 현대 말 풀이이다.

21) 쏘이다. 『필사본 고어대사전』 893쪽.

는 ‘(화살을) 맞다’의 뜻이고 지금의 ‘쏘이다’와 같다. 따라서 (26 ㄴ)는 ‘-이-’에 의한 실현되는 형태적 피동 문장을 본다.

(27) ㄱ. 又怕繩子紐着。[번노 上 p79:1]

ㄴ. 또 노히 버물가 저해라.²²⁾

ㄷ. 밧줄이 얹히는 게 걱정이야.

(27 ㄴ)에서는 ‘버물다’²³⁾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는 ‘얹히다’²⁴⁾라는 동사를 뜻한다. 여기서 문맥상으로 고려해서 ‘얹히다’ 1번의 뜻을 취한다. (27 ㄴ) 번역문에서 피동으로 번역되었다. 王力(1943)에서 행위자는 말할 필요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주어가 무생물이고, 불리하거나 유쾌하지 않은 일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피동을 뜻하는 조동사 ‘被’자는 의미상 피동이라고 하였다. (27. ㄱ)를 보면 주어 밧줄(繩子)이 무생물이고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얹히는 (紐)’는 상황이 되어 동사 ‘紐’앞에 조동사 ‘被’자를 생략한 피동 문장으로 간주해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27. ㄱ)는 피동 문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버물다’라는 동사 자체가 ‘얹히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미상 그대로 피동이 된다고 본다.

‘-티/히-’가 붙어서 형성되는 피동의 다른 문장이 다음과 같이 있다.

(28) ㄱ. 如今那賊現在官司牢里禁着。[번노 上 p64:5]

ㄴ. 이제 그 도주기 구윳 옥에 이셔 가텃느니라.

22) 저해라: 두려워라.↔(파: 怕)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197쪽.

23) 버물다: 1.쫓다, 따르다; 2. 얹히다, 걸리다, 얹매이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87-588쪽.

24) 얹히다: 1.‘얹다’(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의 피동사. 2.‘얹다’(이리저리 관련이 되게하다)의 피동사.[출처: 표준국어대사전]

ㄷ. 지금 그 강도는 실제로 관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8. ㄴ)에서 나온 '가티다'²⁵⁾는 '갇히다'의 옛말이다. (28. ㄴ)는 피동접미사 '티/히'로 만든 파생적 피동이라고 볼 수 있다. (28. ㄱ)는 피동 표지 '被'와 같은 전치사가 없지만 여기서 '禁着'가 문맥상 '감금당하다'의 뜻을 나타내서 피동구문을 본다.

1.2.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아 디다'로 인한 실현되는 피동을 말한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9) ㄱ. 這的捱十年也坏不得。[번노 上 p81:4]
ㄴ. 이거시 십년을 디나도 히야디디 아니히리로다.
ㄷ. 이러면 10년이 이르도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로세.

- (30) ㄱ. 連其余的馬都染的坏了。[번노 下 p47:5]
ㄴ. 다른 물조차 다 던섬히야²⁶⁾ 히야디리로다.
ㄷ. 나머지 말들에게로 미치어 모두 감염돼 벌릴 것이오.

예문(29. ㄴ)과 (30. ㄴ)에서 '히야 디다'²⁷⁾가 나왔는데 여기서 '-아 디다'에 의해서 실현되는 통사적 피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문(29. ㄱ)은 중의성이 있다. '坏'자가 형용사의 뜻을 본다면 피동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단순한

25) 가티다: '갇히다'의 옛말이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6) 던섬히다: 전염하다, (염:染)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356쪽.

27) 히야디다: 1. 헤어지다, 못 쓰게 되다. 2. 탈나다, 병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578쪽.

평서문으로 본다. 그러나 ‘坏’자가 동사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피동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원문 (30.ㄱ)은 나머지 말들이 아픈 한 말(馬)을 인해서 못 쓰게 되는데 문맥상을 보면 여기서 ‘染的坏了’는 2장에 언급한 어휘적 무표지 피동2에 속한다. (29.ㄴ)와 (30.ㄴ)은 원문에 대한 해석이 잘 된 것이다.

1.3. ‘넙다/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

‘받다, 맞다, 입다, 당하다’등이 피동적인 의미로 가진 동사를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피동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피동은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역시 보았다.

(31) ㄱ. 定然喫打三下。[번노 上 p13:1]

ㄴ. 일덩 세 번 마조를 니브리라.

ㄷ. 꼭 세 번 맞게 됩니다.

(32) ㄱ. 我沿路來時，好生多得他濟。[번노 下 p21:6]

ㄴ. 내 길 조차 올 시저리 ㄴ장 만히 더의 거리치믈²⁸⁾ 니부라.

ㄷ. 우리가 길을 따라 오면서 도움을 꽤 많이 받았네.

(31.ㄴ)와 (32.ㄴ)를 보면 ‘넙다’²⁹⁾의 동사가 있는데 이는 동사 ‘입다’의 옛말이다. 그러므로 (31.ㄴ)와 (32.ㄴ)의 ‘마조를 니브리라’와 ‘거리치믈’³⁰⁾ 니부라’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의미상 ‘넙다/입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다. 원문 (31.ㄱ)을

28) 거리치다: 동사, 구제하다↔(제: 濟)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9쪽.

29) 넙다: 1. (옷을)입다 2. (덕을) 입다 3. 입다, 당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94쪽.

30) 거리치다: 구제하다↔(제: 濟)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9쪽.

보면 ‘喫’자가 있는데 원래 ‘먹다’의 뜻이지만 여기서 ‘당하다’의 뜻으로 전환하고 피동적 문장이라 본다.³¹⁾ 그리고 (32.ㄱ)를 보면 ‘得’자가 있는데 ‘得’자는 원래 ‘받다’의 뜻이기 때문에 원문(32.ㄱ)도 의미상으로 피동을 볼 수 있다.

(33) ㄱ. 看那射着的弓手。[번노 上 p64:1]

ㄴ. 그 살 마즌 弓手를 보니.

ㄷ. 화살을 맞은 병사를 보니.

예문 (33.ㄱ)의 ‘射着’는 피동표지가 없지만 의미상 어휘적 피동이라고 할 수 있다 (33.ㄴ)는 ‘살 마즌’³²⁾의 ‘맞다’에 의한 실현되는 피동을 본다.

(34) ㄱ. 若不救時，傍人要唾罵。[번노 下 p103:3]

ㄴ. 헛다가 구티 아니헛면 겨릿 사람이 춤 받고 꾸지스리라.³³⁾

ㄷ. 만일 도와주지 않으면 남들한테 욕을 먹게 된다.

(35) ㄱ. 父母的名聲辱磨了時，別人唾罵也。[번노 下 p105:6]

ㄴ. 부뭇 명성을 더러이면 늑미 춤 받고 꾸지스리라.

ㄷ. 부모의 명성을 더럽히면 남들이 욕할 것이다.

(34.ㄴ)와 (35.ㄴ)에서 나온 ‘춤’³⁴⁾이 ‘침’의 옛말이다. 번역문(ㄴ)에 ‘늑미 춤 받다’는 표현이 원문(ㄱ)에서 ‘唾’자를 번역하는 것이다. 원문을 이해할 때 문맥에 맞추어 (34.ㄴ)와 (35.ㄴ)에서 ‘침을 받다’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게 되었다.

31) 원문 ‘喫打三下’ ‘喫’은 수동(受動)을 나타내는 동사로 ‘당하다’는 뜻이 있다. 정광 (2010), 『譯註 原本老乞大』, 28쪽 주10 참조.

32) 마즌-: 1. (화살을) 맞다, 2. ↔(피: 被)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472쪽.

33) 꾸짓다: 꾸짓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854쪽.

34) 춤: 침,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383쪽.

그러나 한국어에서 ‘침을 받다’는 말이 잘 안 쓰고 ‘침을 뱉다’에서 나온 ‘침 뱉음을 당하다’의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34)와 (35)의 번역문에 ‘춤 받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고 (34 .ㄴ)그리고 (35.ㄴ)는 모두 ‘받다’에 의한 실현되는 피동에 속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춤 받다’를 정확한 표현인 ‘침 뱉음을 당하다’로 해석하면 피동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의 번역특징

『번역 노걸대』의 원문에서 나타난 피동이 번역문에서 피동으로 번역하지 못하는 현상도 적지 않다. 원문에서 피동 문장인데 번역문에서 피동이 아닌 문장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중국어원문	피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피동 여부
被一个賊到那里見了。 [번노 上 p58:7]	○	흔 도즈글 맛나 게 와 보고.	×
有一座橋塌了來，如今修起來了 不曾？[번노 上 p55:8]	○	흔 곧 드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터 잇는가? 몰흐얏는가?	×
早修起了。[번노 上 p56:1]	○	벌서 고터 잇느니.	×
明日着人罵。[번노 上 p78:5]	○	너일 느미 구지람 든느니라.	×
牙稅錢都籌了。[번노 下 p45:8]	○	牙錢稅錢을 다 헤어다.	×
休教別人將去了。 [번노 下 p80:8]	○	다른 사름 가져 가게 말라.	×
休教雨雪濕了。 [번노 下 p82:3]	○	눈비에 젖게 말라.	×

<표 8> 번역문에서 피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원문의 피동 구문

따라서 <표 8>에 보여준 피동의 번역유형B의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36) ㄱ. 被一个賊到那里見了。[번노 上 p58:7]

ㄴ. 혼 도즈글 만나 게 와 보고.

ㄷ. 거기에 강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36.ㄱ)는 피동 표지 ‘被’자로 인한 실현되는 피동구문이다. 그러나 (36.ㄴ)에서 번역된 것을 보면 피동적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어 피동문장의 특징을 고찰하면, 여기서 ‘被’자가 없어도 완벽한 말이 되고 아무 의미적 변화가 없다. 앞에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 피동을 일어나는 현상의 특징을 보면 항시 바라지 않았던 일이나 불유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피동을 잘 쓰인다. 그러나 한국어 피동에 이런 현상이 없다. 따라서 원문을 번역할 때 의미에 중심을 두고 중국어 피동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37) ㄱ. 有一座橋塌了來，如今修起來了不曾？[번노 上 p55:8]

ㄴ. 혼 곧 다리 물어디³⁵⁾여 잇더니, 이제 고터³⁶⁾ 잇는가? 묻혔는가?

ㄷ. 한 다리가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은 고쳤는가?

(38) ㄱ. 早修起了。[번노 上 p56:1]

ㄴ. 벌써 고터 잇느니.

ㄷ. 오래 전에 고쳤습니다.

35) 물어디다: 동사, 무너지다. ↔(답: 塌)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33쪽.

36) 고티다: 동사, 1. 고치다, 수리하다; ↔(수기: 修起) 2. 고치다, 치료하다. ↔(치: 治)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00쪽.

예문(37.ㄱ)와 (38.ㄱ)를 보면 ‘修起(來)了’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문장에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기에 2장에서 말한 중국어의 어휘적 무표지 피동 2에 속한다. ‘무너진 다리’(주어)가 고치는 동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7.ㄴ)와 (38.ㄴ)에서 그의 ‘이미 고치게 된 상태’를 고려해서 과거형으로 ‘고쳤다’를 번역하였다.

(39) ㄱ. 明日着人罵。[번노 上 p78:5]

ㄴ. 내일 너미 구지람³⁷⁾ 든느니라.

ㄷ. 내일 사람들이 욕하고 갈 테니까.

예문(39.ㄱ)에서 ‘着’자가 ‘人(사람)’앞에 나와 전치사로 보인다. 문맥상으로 피동을 일으키는 전치사를 본다. (39.ㄴ)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고려해서 ‘꾸지람 든다’의 서술형 문장으로 번역했다. 피동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40) ㄱ. 牙稅錢都籌了。[번노 下 p45:8]

ㄴ. 牙錢稅錢을 다 헤어다. ³⁸⁾

ㄷ. 중개료와 세금 둘 다 계산되었습니다.

예문(40.ㄱ)을 보면 ‘籌了’ 있는데 이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기에 2장에서 말한 중국어의 어휘적 무표지 피동2에 속한다. ‘牙稅錢’(주어)가 ‘헤다’의 동작을 받기 때문이다. (40.ㄴ) ‘계산된 상태’를 고려해서 서술문을 쓰이고 ‘다 계산되었다’를 번역하였다. (40.ㄴ)는 피동이 아니라고 본다.

37) 꾸지람: 꾸지람.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854쪽.

38) 헤다: 헤아리다, 계산하다, 셈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510쪽.

(41) ㄱ. 休敎別人將去了。[번노 下 p80:8]

ㄴ. 다른 사람 가져 가게 말라.

ㄷ. 딴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42) ㄱ. 休敎雨雪濕了。[번노 下 p82:3]

ㄴ. 눈비에 젖게 말라.

ㄷ.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게.

예문(41.ㄱ)과 (42.ㄱ)은 전치사 ‘敎’자로 이루는 피동구문이 된다. 앞에 말했듯이 중국어 피동에서 불유쾌하거나 불리한 일에서 피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피동에서 그렇지 않다. 따라서 (41.ㄴ)와 (42.ㄴ)에서 단지 문장 전체의 의미를 고려해서 서술형 ‘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지 말라’의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번역노결대』의 피동구문들을 원문과 함께 일일이 살펴보았다. 『번역노결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관계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유형	중국어원문		중세한국어 번역문
I(원문 피동○ + 번역문 피동○)	어휘적 피동	禁着, ‘간히다, 감금당하다’등 피동성을 가진 동사	파생적 피동
		‘喫, 得’ 등 ‘먹다, 받다’의 뜻을 가진 동사	‘입다, 맞다, 받다’류 피동
II(원문 피동○ + 번역문 피동×)	어휘적 피동(修起了, 수리되었다)		피동×
	통사적 피동 (피동표지인 전치사 또는 보조사로 이루는 피동)		
III(원문 피동× + 번역문 피동○)	피동×		통사적 피동

<표 9> 『번역노결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관계

유형I인 경우 중국어원문의 피동구문이 '어휘적 피동'이며, 원래 피동성을 가진 동사로 실현되는 피동과 '받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실현되는 피동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예문(28)과 같이 피동성을 가진 동사가 서술어로 된 피동구문이 중세 번역문에서 '파생적 피동'으로 해석하였다. 두 번째 예문(32)과 같이 '받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피동구문이 '입다, 맞다' 등으로 해석하여 중세 한국어에는 '입다, 맞다, 당하다' 류의 피동문장이 된다. 유형II의 예문(38)과 같이 중국어원문에는 '어휘적 피동'이고 중세 한국어에서는 피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문(36)과 같이 중국어 원문에는 피동표지인 '被'자로 피동구문이 실현되었고 중세한국어에는 피동을 해석하지 않았다. 유형III인 경우는 예문(29)과 같다.

한국어피동의 유형을 보면 '절로 되는 입음'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해어 디다'와 같은 '절로 되는 입음' 동사가 피동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다. 이는 한·중 피동의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V.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

『번역노걸대』에서 사동 표현이 피동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인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사동들을 원문 중국어와 함께 본다면 또한 <표 9>과 같이 3 가지 번역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중국어원문	중세한국어 번역문
I	사동 ○	사동 ○
II	사동 ○	사동 ×
III	사동 ×	사동 ○

<표 10>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유형

<표 10>과 같이 『번역노걸대』에서 나타난 사동의 번역유형을 원문과 번역문에서 모두 사동이 된 유형I와 원문에서 사동이 되고 번역문에서 사동이 안 되는 유형II, 그리고 원문에 사동이 아니지만 번역문에서 사동이 되는 유형III로 분류하였다.

유형 I ㄱ. 爐著些火, 熱手脚。[번노 下 p80:6]

ㄴ. 불 무희워 손발 데워지라.

유형 II ㄱ. 休着出气。[번노 上 p47:2]

ㄴ. 김 나게 말오

유형 III ㄱ. 且休摘了鞍子。[번노 上 p141:1]

ㄴ. 안직 기르마 벗기다 말라.

유형I의 예문을 보면 원문의 '熱'이라는 동사 자체가 '가열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서 사동이 된다. 번역문에서 '데우다'를 해석된 바와 같이 역시도 사동이다. 유형II의 예문을 보면 원문에 '着'라는 사동 표지가 있어서 사동이 되는데 번역문에서 '김 나게 말오'로 번역되었는데 단지 서술문이고 사동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유형III의 예문을 보면 원문에서 '摘了(벗다)'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 피사동주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행동이기에 원문의 문장이 사동이 안 된다. 번역문에서 '벗기다'는 '벗다'에 사동접미사'-기-'를 붙어서 실현되는 사동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쓰여 사동문장이 된다.

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 나타난 사동의 유형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사동을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와 같이 또한 몇 가지 유형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사동구문을 또한 그의 형성되는 특징에 따라서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그리고 'NP+하야(-시키다)+VP'의 사동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1. 파생적 사동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파생적 사동'을 다음 표와 같이 중국어 원문과 분리해서 정리하였다.

중국어원문	사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사동 여부
咱們歇息頭口，明日早行。 [번노 上 p24:3]	○	우리 믋쇼 쉬워 니실 일 너져.	○
尋个好干淨店里下去來。 歇頭口着。[번노 上 p37:5]	○	조흔 덤 굴히여 브려서 즘승 쉬우져	○
罷，罷，休旋去。我只涼吃。 [번노 上 p130:4]	○	두워, 두워, 데우라 가디 말라. 우리 츠니 머구리라.	○
煙著些火，熱手脚。 [번노 下 p80:6]	○	불 무희워 손발 데워지라.	○
等馬大控一會，慢慢的喂着 。[번노 上 p51:6]	○	므리 혼 디워 ㄱ장 쉬어든 기들워 날회여 머기라.	○
我這馬們不曾飲水里，等一會控 到時飲去。[번노 上 p66:1]	○	우리 이 물돌히 물 아니 머것더니, 혼 디워 쉬요 물 ㄱ장 히야든 기들워 머기라 가져.	○
咱們輪着起來勤喂馬。 [번노 上 p67:8]	○	우리 돌여 니러 브즈르니 물 머기져.	○
一霎儿馬吃了這和草，飲水去。 [번노 上 p69:8]	○	혼 디워 믋리 이 버므린 덤 머거든 물 머기라 가져.	○
着馬吃。[翻老 上 p73:4]	○	물돌홀 머기라.	○
好生喂几日發落也不遲里。 [번노 上 p143:5]	×	ㄱ장 여러날 머겨 디쳐히야도 쏘 늦디 아니 히리라.	○
這馬都卸下行李，鬆了肚帶，取 了嚼子，這路傍邊放了，着吃草 着。[번노 上 p82:3]	○	이 물돌 짐 브리우고 오랑 느추고 마함 벗기고, 이 값 ㄱ새 노하 플 먹게 호고.	○
且休摘了鞍子。[번노 上 p141:1]	×	안직 기르마 벗기디 말라.	○
我去稅了，送將來與你。 [번노 下 p46:6]	×	내 가 벗겨 보내여 너 주마.	○
你稅了契時，到明日 我下處送來。[번노 下 p50:5]	×	네 글월 벗겨든 리실 우리 하추로 보내여라.	○
教当值的學生背起，打三下。 [번노 上 p10:6]	△	덕실션비 히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
上等弓若槿了時，買的人不信。 [번노 下 p72:2]	×	上等엿 화리니 히다가 못 니피면 살 사르미 믿디 아니홀 거실시.	○
這里定害了。[번노 上 p121:5]	○	여기 닐이쾌이다.	○
着牙人先看。[번노 下 p38:2]	○	즈르물 묻져 뵈라.	○
文契着誰寫? [번노 下 p39:3]	△	글워를 눌 히야 쓰이료?	○

教人看了面子上的角，背子上鋪的肋。[번노 下 p72:3]	○	사르모로 <u>흐야</u> 面子에 올인 썰와 등 우희 <u>썩론힘</u> <u>뵈오</u> .	○
父母的名聲辱磨了時，別人唾罵也。[번노 下 p105:5]	×	부뭇 명성을 <u>더러이면</u> <u>늑미</u> 춤 받고 <u>썩지즈리라</u> .	○
既這般時，價錢還虧着我。[번노 下 p37:2]	○	이피 이러흐면 감시 다하 <u>내게</u> <u>설웨라</u> .	○
自己祖上的名聲休壞了。[번노 下 p105:1]	○	내 조상 명성을 <u>흐야브리디</u> <u>말오</u> .	×
似你這般都要官銀時，虧着我。[번노 下 p131:6]	○	네 이러트시 다 구의나깃 은으로 <u>바드면</u> <u>내게</u> <u>설웨라</u> .	○
待虧你多少？[번노 下 p131:7]	○	네게 언매나 <u>설우리오</u> ?	○
我多多的 <u>定害</u> 你，你休怪。[번노 下 p154:6]	○	우리 네거기 만히 <u>해자히와라</u> . 네 허믈 말라.	○

<표 11>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파생적 사동

‘파생적 사동’은 어근에 사동접미사가 붙어서 파생된 사동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이다. 사동의 파생 접사는 피동의 파생 접사와는 달리 주동사의 품사에 관계없이 사동사를 파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파생적 사동 표현을 살펴보자.

주동사의 어근에 ‘-우-’가 붙어서 파생된 사동사가 사동문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43) ㄱ. 咱們歇息頭口，明日早行。[翻老 上 p24:3]

ㄴ. 우리 므쇼 쉬워 너실 일 너져.

ㄷ. 말을 쉬게 하고, 내일 일찍 출발하도록 하세.

(44) ㄱ. 尋个好干净店里下去來。歇頭口着。[翻老 上 p37:5]

ㄴ. 조흔 덤 곁히여 브려서 즐송 쉬우저

ㄷ. 깨끗한 여관을 찾아 짐을 풀고 말을 쉬게 합시다.

예문(43.ㄴ)과 (44.ㄴ)에서 모두 ‘쉬우다’³⁹⁾의 동사가 나왔는데, 이는 ‘쉬다’에 사동접미사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사이다. 따라서 (43.ㄴ)와 (44.ㄴ)는 사동접미사‘-우’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문 (43.ㄱ)과 (44.ㄱ)을 사동구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歇息’는 주어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동작이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馬)에 입장에서 보면 ‘歇息(쉬다)’는 것을 주인이 시켜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입장에서 사동구문으로도 볼 수 있다.

(45) ㄱ. 爐著些火, 熱手脚。[번노 下 p80:6]

ㄴ. 불 무히워⁴⁰⁾ 손발 데워지라.

ㄷ. 불을 때어 손발을 따뜻하게 하자.

(46) ㄱ. 罷, 罷, 休旋去。我只涼吃。[번노 上 p130:4]

ㄴ. 두워, 두워, 데우라 가디 말라. 우리 찻니 머구리라.

ㄷ. 땀네. 데우지 말게. 차갑게 먹겠네.

예문(45.ㄴ)과 (46.ㄴ)에 ‘데우다’⁴¹⁾의 동사가 있는데, 이는 ‘덥히다’의 뜻이다. 원문(45.ㄱ)에서 ‘熱’는 여기서 ‘가열하다’의 뜻으로 이해되고 2장에서 언급한 어휘적 사동의 ‘합성어’사동문을 본다. (46.ㄱ)에서 ‘休旋’이 나왔다. 여기서 ‘旋’은 술을 양푼에 담아 뜨거운 물에 돌려서 데우는 것을 말한다.⁴²⁾ 즉, ‘가열하다’의 뜻을 말한다. 의미상으로 일치해서 ‘데우다’에 의한 사동구문을 번역이

39) 쉬우다: [옛말] 숨을 쉬게 하다, 호흡을 시키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807쪽.

40) 무히우다: 동사, (불을) 피우다, 때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18쪽.

41) 데우다: 동사, 데우다, 덥히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353쪽.

42) ‘鑪’은 술 등을 데우는 쇠로 된 그릇을 말하는데 원(元) 대동(戴侗)의 『육서고(六書故)』에 ‘鑪’은 溫器 니라. 이것을 뜨거운 물에 하여 이것으로 술을 데운다’라는 설명이 있다. 원곡(元曲) 등에서는 동사로도 사용되었다. 정광(2010), 『譯註 原本老乞大』, 169쪽 주4 참조

잘 되었다.

(47) ㄱ. 等馬大控一會，慢慢的喂着。[번노 上 p51:6]

ㄴ. ㄹ리 혼 디워 ㄹ장 쉬어든 기들워 날회여 머기라.

ㄷ. 말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되네.

(48) ㄱ. 我這馬們不曾飲水里，等一會控到時飲去。[번노 上 p66:1]

ㄴ. 우리 이 물돌히 물 아니 머것더니, 혼 디워 쉬요 물 ㄹ장 히야든 기들워 머기라 가져.

ㄷ. 말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았거든요, 잠시 쉬게하고 나서 물을 마시게 하러 가고 싶은데.

(49) ㄱ. 咱們輪着起來勤喂馬。[번노 上 p67:8]

ㄴ. 우리 돌려 니러 브즈러니 물 머기져.

ㄷ. 우리 순서대로 일어나서 말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주세.

(50) ㄱ. 一霎儿馬吃了這和草，飲水去。[번노 上 p69:8]

ㄴ. 혼 디워 ㄹ리 이 버프린 딤 머거든 물 머기라 가져.

ㄷ. 좀더 있다가 말이 여물을 다 먹으면 물을 먹이러 갑시다.

(51) ㄱ. 羞馬吃。[번노 上 p73:4]

ㄴ. 물돌홀 머기라.

ㄷ. 말부터 마시게 하세.

(52) ㄱ. 好生喂几日發落也不遲里。[번노 上 p143:5]

ㄴ. ㄹ장 여러날 머겨 디쳐⁴³⁾하야도 쏘 늦디 아니 히리라.

ㄷ. 며칠 충분히 먹이고 나서 팔아도 늦지는 않겠지.

예문(47)~(52)에서 모두 ‘말을 먹이다’는 문장이다. (47 ㄴ)~(52 ㄴ) 모두 ‘머기다’⁴⁴⁾를 번역하였고 물론 사동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어 원문에서 전치사‘着’가 나타난 (51 ㄱ)만을 사동구문으로 본다. 나머지 (47 ㄱ)의 ‘喂’, (48 ㄱ)의 ‘飲水’, (49 ㄱ)의 ‘喂’, (50 ㄱ)의 ‘飲水’, (52 ㄱ)의 ‘喂’는 주어인 ‘人(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사동구문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말(馬)에게 사동이 되지만 문장이 아닌 짧은 사동의 표현으로 본다.

(53) ㄱ. 這馬都卸下行李，鬆了肚帶，取了嚼子，這路傍邊放了，羞吃草着。

[번노 上 p82:3]

ㄴ. 이 물돌 짐 브리우고⁴⁵⁾ 오랑 느추고⁴⁶⁾ 마함 벗기고, 이 길^ㄱ새
노하 풀 먹게 호고.

ㄷ. 이 말의 짐을 모두 내리고, 말의 복대를 느슨하게 풀고 재갈도
빼낸 다음 길가에 풀어주어 풀을 뜯어먹게 하세.

(54) ㄱ. 且休摘了鞍子。[번노 上 p141:1]

ㄴ. 안직 기르마 벗기디 말라.

ㄷ. 안장은 아직 떼지 말게.

(55) ㄱ. 我去稅了，送將來與你。[번노 下 p46:6]

ㄴ. 내 가 벗겨 보내여 너 주마.

43) 디쳐 호다: 동사, 처치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419쪽.

44)머기다: 먹이다, (꺀 :喫, 喂)(음: 飲)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481쪽

45)브리우다: 1. (활을)부리다. 활시위를 벗기다.2. (짐을) 부리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645쪽.

46) 느추다: 늦추다, 느슨하게 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80-281쪽.

ㄷ. 내가 세금을 지불하고 당신들에게 가져오겠소.

(56) ㄱ. 你稅了契時，到明日 我下處送來。[번노 下 p50:5]

ㄴ. 네 글월 벗겨든 리실 우리 하쥬로 보내여라.

ㄷ. 당신이 세금 내는 일이 끝나면 내일 내 숙소로 계약서를 가져 오 시오.

예문(53.ㄴ)~(56.ㄴ)에서 모두 ‘벗기다⁴⁷⁾’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벗다’에 사동접미사 ‘-기-’를 붙어서 실현되는 사동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쓰여 만드는 사동문이다. 그러나 원문에서 사동구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동 표시인 전치사가 없음에 불구하고 어휘적 사동도 되지 않았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동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문맥상을 고려해서 원문을 언해했을 때에 사동을 번역하였던 것을 본다.

(57) ㄱ. 敎當值的學生背起，打三下。[번노 上 p10:6]

ㄴ. 덕실선의 허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ㄷ. 당직 학생한테 일러서 돌려 세워 세 번을 때립니다.

예문(57.ㄴ)를 보면 ‘어피다’⁴⁸⁾는 ‘엎드리게 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57.ㄴ)는 ‘어피다’에 의한 어휘적 사동이 된다. 그러나 원문 (57.ㄱ)에서 ‘敎’자가 사동표지인 전치사로 보면 사동구문이 되지만 앞에 주어가 생략해서 피동 표시인 전치사로도 보아서 피동구문을 볼 수도 있다.

47) 벗기다: 동사, 1. 벗기다, 제거하다, 떼다(적: 摘); 2.동사, (문서나 증서를) 베끼다, 작성하다.(세: 稅)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593쪽.

48) 어피다: ‘엎드리게 하다’의 뜻이다. ‘背’에는 ‘등을 돌리게 한다’는 뜻이 있고 조선 시대의 서당에서는 학생들의 체벌을 반드시 돌려세워서 종아리를 쳤기 때문이다. 정광(2010) 『譯註 原本老乞大』, 27쪽 주5 참조.

(58) ㄱ. 上等弓若樺了時，買的人不信。[번노 下 p72:2]

ㄴ. 上等엿 화리니 헛다가 붓 니피면 살 사르미 믿디 아니홀 거실식.

ㄷ. 상등의 활에 만일 지작나무 껍질을 붙이면 사는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문(58 ㄴ)에서 ‘니피다’⁴⁹⁾는 ‘입히다, 붙이다’의 옛말이고 번역문 (58 ㄴ)을 사동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58 ㄱ)에서 사동의 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서술구문이다.

(59) ㄱ. 羞牙人先看。[번노 下 p38:2]

ㄴ. 즈르믈 몬져 봔라.

ㄷ. 중개인이 먼저 확인해 주시오.

(60) ㄱ. 敎人看了面子上的角，背子上鋪的肋。[번노 下 p72:3]

ㄴ. 사르모로 헛야 面子에 올인 썰와 등 우희 ㅅ론힘 봔오.

ㄷ. 먼저 손님에게 활 안쪽의 물소 뿔과 등 뒤쪽에 붙인 쇠 힘줄을 보여주고.

예문(59.ㄴ)과 (60.ㄴ)는 ‘봔다’⁵⁰⁾ 즉 ‘보이다’의 뜻이고 ‘-이-’에 의한 사동사 ‘보이다’로 실현되는 사동구문이 된다. (59.ㄱ)와 (60.ㄱ)는 사동 표지로 쓰인 전치사 ‘敎’자와 ‘着’자 있어서 원문 중국어에도 사동구문을 간주한다.

49) 니피다: 입히다, 붙이다, 부착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94쪽.

50) 봔다: 보이다, ‘보다’의 사동사. 여기서 ‘확인하다’의 뜻이다.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3)ㄱ~ㅂ』, 학고방, 636-637쪽 참조

(61) ㄱ. 文契着誰寫? [번노 下 p39:3]

ㄴ. 글위를 늘 히려 쓰이료?

ㄷ.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62) ㄱ. 父母的名聲辱磨⁵¹⁾了時, 別人唾罵也. [번노 下 p105:5]

ㄴ. 부모 명성을 더러이면 낙미 춤 받고 꾸지스리라.

ㄷ. 부모의 명성을 더럽히면 남들이 욕할 것이다.

예문(61.ㄴ)과 (62.ㄴ)에서 ‘쓰이다’와 ‘더러이다’⁵²⁾가 있는데 이는 모두 사동 접미사 ‘-이-’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문으로 볼 수 있다. 원문(61.ㄱ)에서 사동 표지인 전치사 ‘着’가 나타난 중국어에도 사동구문을 본다. 그러나 ‘着’자는 피동 표지로 전치사를 쓰이기도 해서 원문(61.ㄱ)만 보면 피동구문도 볼 수 있는 중의성이 있다. (62.ㄱ)는 서술문을 간주하고 사동의미를 찾을 수 없다.

(63) ㄱ. 既這般時, 價錢還虧着我. [번노 下 p37:2]

ㄴ. 이따 이러하면 감시 다하 내게 설웨라.

ㄷ. 그럼 이쪽이 큰 손해인데요.

(64) ㄱ. 似你這般都要官銀時, 虧着我. [번노 下 p131:6]

ㄴ. 네 이러특시 다 구의나짓 은으로 바드면 내게 설웨라.

ㄷ. 당신처럼 전부 새 지폐를 내라고 하면 나만이 손해를 보는 셈이요.

(65) ㄱ. 待虧你多少? [번노 下 p131:7]

51) 원문 ‘辱磨’는 ‘부끄럽게 하다’는 뜻이나 여기서 문맥에 맞추어 ‘더럽히다’로 번역한다. 정광(2010), 『譯註 原本老乞大』, 307쪽 주2.

52) 더러이다: 동사, 더럽히다, ↔(음마: 辱磨)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350쪽.

ㄴ. 네게 언매나 설우리오?

ㄷ.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요?

예문(63.ㄴ)~(65.ㄴ)에 나온 ‘설우-’⁵³⁾는 ‘손해를 보다’의 뜻으로 나타내는데 원문과 대비하면 번역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ㄱ)과 (64.ㄱ)에서 ‘虧着我(나를 손해를 보게 하다)’를 나왔는데 의미상으로 무표지 사동구문을 볼 수 있다. (65.ㄱ)에서는 ‘虧你’는 ‘너에게 손해를 보게하다’는 뜻으로 또한 사동구문을 간주한다.

(66) ㄱ. 這里定害了。[번노 上 p121:5]

ㄴ. 여기 널이패이다.

ㄷ. 당신께는 폐를 끼쳤습니다.

(67) ㄱ. 我多多的定害你，你休怪。[번노 下 p154:6]

ㄴ. 우리 네거리 만히 해자히와라. 네 허를 말라.

ㄷ. 우리가 당신께 여러 가지 폐를 끼쳤으나 당신은 부디 허물하지 마시오.

예문(66.ㄱ)과 (67.ㄱ)에 나온 ‘定害’는 ‘방해하다’는 뜻으로 어휘적 무표지 사동을 본다. (66.ㄴ)의 ‘널이다’⁵⁴⁾는 ‘폐를 끼치다’의 뜻을 의미하며, (67.ㄴ)의 ‘해자(害)-히이다’⁵⁵⁾는 ‘해자(害)를 시키다’의 뜻을 의미하여 (66.ㄴ)와 (67.ㄴ)가 또한 어휘적 사동구문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널이다’가 ‘-이-’를 접

53) 설우-: 싫다/싫다, 섭섭하다, 손해를 보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757쪽.

54) 널이다: 폐를 끼치다, 방해하다, 훼방놓다, 해를 끼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52쪽.

55) 해자(害)-히이다: 접미사, -시키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571쪽.

미사로 붙어서 만드는 사동사라고 할 수 없지만 통사적 사동이라고도 할 수 없기에 파생적 사동이라기보다는 어휘적 사동으로 불린다.

(68) ㄱ. 自己祖上的名聲休坏了。[번노 下 p105:1]

ㄴ. 내 조상 명성을 햏여버리다 말오.

ㄷ. 자기 조상의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예문 (68.ㄱ)에 나온 '坏'자가 여기서 동사로 쓰이고 ' 못 쓰게 하다'의 뜻을 말한다. (68,ㄴ)의 '햏여버리다'⁵⁶⁾는 의미상으로 사동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이 아니지만 문장자체 의미상 사동으로 간주된다.

1.2. 통사적 사동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통사적 사동'을 다음 표와 같이 중국어 원문과 분리해서 정리하였다.

중국어원문	사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사동 여부
教一个自炒肉。[번노 上 p45:8]	○	우리 버디 동에 <u>햏나 햏야</u> 제 고기 <u>봣게 햏라</u> .	○
儘着他吃着。[번노 上 p79:3]	○	제 므슴 ⁵⁷⁾ <u>햏장</u> 먹게 <u>햏져</u> .	○
教一个看着。[번노 上 p82:7]	○	<u>햏나햏 햏야</u> 보게 <u>햏고</u> .	○
教客人們只這棚底下坐的吃飯。 [번노 上 p84:4]	○	나그네들 <u>햏야</u> 그저 이 가게 아래 안자셔 밥 먹게 <u>햏져</u> .	○
着兩個看行李。[번노 上 p96:8]	○	둘햏 <u>햏야</u> 짐 보게 <u>햏고</u> .	○
教我宿一夜如何? [번노 上 p98:4]	○	우리를 <u>햏룻밤 재게 햏미</u> <u>엇더햏뇨?</u>	○
我不是不教你宿。[번노 上]	○	우리 너희를 <u>자디</u> <u>봣게 햏논</u>	○

56) 햏여버리다: 헐어버리다, 못쓰게 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570쪽.

p98:5]		주리 아니라.	
着我宿一夜。[번노 上 p102:3]	○	우리를 <u>흐룻밤만 자게 호디여.</u>	○
敎小孩拿个灯來。[번노 上 p116:4]	○	아히 <u>흐야 등잔쌔 가져오게</u> <u>호고라.</u>	○
這們時，如今敎將來。[번노 上 p116:5]	○	이러면 이제 <u>히여곰 가져오게</u> <u>호마.</u>	○
却着這里的兩個，替換回來。[번노 上 p117:1]	○	밤쑹만 다듣거든 쏘 옛 들흘 <u>흐야 ㄱ라 도라오게 흐야.</u>	○
敎那个伙伴來着。[번노 上 p119:2]	○	더 버들 <u>흐야 오게 흐라.</u>	○
你赶過馬來在一處着，容易照管。 。[번노 上 p119:3]	○	네 몰돌 모라다가 <u>흔 더 잇게</u> <u>흐라.</u> 수이 보슬필 거시라.	○
敎那兩個起來。[번노 上 p120:4]	○	더 들흘 <u>히야 닐에 흐라.</u>	○
敎別人看，要什麼敎別人看去? [번노 上 p133:5]	○	너느 사롭 <u>흐야 보게 흐라.</u> 므슴호려 다르니 <u>흐야 비라</u> <u>가리오?</u>	○
着兩個后頭赶將頭口來。[번노 上 p135:5]	○	들흐란 <u>흐여</u> 뒤헤 즈슁 모라오게 <u>호고.</u>	○
把馬們都鬆了。[번노 上 p140:9]	○	몰돌 다 오랑 <u>서우니 호고.</u>	○
敎你一日辛苦。[번노 下 p79:8]	○	너를 <u>흐야</u> <u>홀롤 내내</u> <u>슈고하게 호과이다.</u>	○
敎吃草。[번노 下 p99:7]	○	플 먹게 <u>호고.</u>	○
肥馬涼者，瘦馬鞍子摘了，絆了 脚，草地撒了，敎吃草。[번 노 下 p99:4]	○	슬진 몰란 서늘케 <u>호고</u> , 여원 몰란 기르마 <u>밧기고</u> , 밭 지달 쑤고, 기슨 짜해 노하 <u>흐야곰</u> <u>플 먹게 호고.</u>	○
敎一个伙伴伺候着時。[번노 下 p101:2]	○	흔 동모 <u>흐야</u> 보슬퍼 <u>디후하게 흐라.</u>	○
自己錢物休愛惜，接濟朋友們使 着。[번노 下 p102:6]	×	내 천 앓기디 말오 벌들홀 주워 <u>쁘게 흐라.</u>	○

<표 12>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통사적 사동

<표10>~<표12>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사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방법은 주동사의 어간에 보조 용언인 ‘-게 하다’가 붙어서 실현된 ‘통사적 사동’이다. 다음 예문과 함께 살펴본다.

(69) ㄱ. 儘着他吃着. [번노 上 p79:3]

ㄴ. 제 먹습신장 먹게 히려.

ㄷ. 이 대로 먹이자.

(70) ㄱ. 這馬都卸下行李, 鬆了肚帶, 取了嚼子, 這路傍邊放了, 着吃草着.

[번노 上 p82:7]

ㄴ. 이 물들 짐 브리우고 오랑 느추고 마함 벗기고, 이 값 ㄹ새 노하
플 먹게 흐고.

ㄷ. 이 말의 짐을 모두 내리고, 말의 복대를 느슨하게 풀고 재갈도
빼낸 다음 길가에 풀어주어 풀을 뜯어먹게 하세.

(71) ㄱ. 教我宿一夜如何? [번노 上 p98:4]

ㄴ. 우리를 흐룻밤 재게 호미 엇더 흐뇨?

ㄷ. 우리를 하룻밤 자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72) ㄱ. 我不是不教你宿. [번노 上 p98:5]

ㄴ. 우리 너희를 자디 몰게 흐논 주리 아니라.

ㄷ. 내가 당신들을 묵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73) ㄱ. 着我宿一夜. [번노 上 p102:3]

ㄴ. 우리를 흐룻밤만 자게 호디여.

ㄷ. 우리를 하룻밤 자게 해줘요.

(74) ㄱ. 你趕過馬來在一處着, 容易照管. [번노 上 p119:3]

ㄴ. 네 물들 모라다가 흔 디 잇게 흐라. 수이 보습필 거시라.

ㄷ. 말을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하게. 그러면 돌보는 것도 쉽지.

(75) ㄱ. 敎吃草。[번노 下 p99:7]

ㄴ. 풀 먹게 하고.

ㄷ. 풀을 뜯어먹게 한다.

(76) ㄱ. 自己錢物休愛惜，接濟朋友們使着。[번노 下 p102:6]

ㄴ. 내 천 앓기디 말오 번들홀 주워 쓰게 하라.

ㄷ. 자기 돈을 아낌없이 친구에게 빌려주고 쓰게 해라.

예문(69)~(76)의 번역문(ㄴ)에서 모두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으로 볼 수 있다. 원문 (70 ㄱ)에서 ‘着吃草’는 ‘풀 먹게 하다’의 뜻인데 전치사 ‘着’자로 인한 이루는 사동구문을 본다. 또한 (71.ㄱ), (72.ㄱ), (73.ㄱ)와 (75.ㄱ)의 원문 중국어에서 ‘敎’자가 사동표지인 전치사가 되어 사동구문을 나타낸다. 그러나 (69.ㄱ)의 ‘儘着他吃’는 ‘마음껏 먹게 하다’의 뜻이고, (74.ㄱ)의 ‘趕過馬來在一處着’는 ‘한 곳에 있게 하다’의 뜻이고, 그리고 (76.ㄱ)의 ‘接濟朋友們使着’는 ‘친구를 구제하여 쓰게 하다’의 뜻을 의미해서 중국어 원문 (69.ㄱ), (74.ㄱ)와 (76.ㄱ)는 모두 어휘적 사동의 무표지 사동에 속한다.

(77) ㄱ. 把馬們都鬆了。[번노 上 p140:9]

ㄴ. 몰들 다 오랑 서우니 하고.

ㄷ. 말들도 굴레를 벗김시다.

예문(77.ㄴ)를 보면 ‘서우니’⁵⁷⁾가 있는데 이는 ‘느슨하게’의 뜻이고 예문(77.

57) 서우니: 부사, 느슨하게, 설피게,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733 쪽.

ㄴ)을 '말들의 굴레를 느슨하게 하다'로 해석해서 (77.ㄴ)은 사동으로 간주한다. 원문(77.ㄱ)에서는 2장에 중국어의 사동에 언급한 바와 같이 '把'자 사동에 속한다.

(78) ㄱ. 教一个自炒肉。[번호 上 p45:8]

- ㄴ. 우리 버디 동에 흐나 흐야 제 고기 볶게 흐라.
- ㄷ. 우리 동행 가운데 한 사람에게 고기 볶는 것을 시키시오.

(79) ㄱ. 教一个看着。[번호 上 p82:7]

- ㄴ. 흐나 홀 히야 보게 흐고.
- ㄷ. 한 사람이 지키게 하고.

(80) ㄱ. 教客人們只這棚底下坐的吃飯。[번호 上 p84:4]

- ㄴ. 나그네들 흐야 그저 이 가게 아래 안자서 밥 먹게 흐져.
- ㄷ. 손님들에게 이 차일 밑에 앉아서 식사를 드시게 마련하거라.

(81) ㄱ. 教小孩拿个灯來。[번호 上 p116:4]

- ㄴ. 아히 흐야 등잔썰 가져오게 흐고라.
- ㄷ. 아이들을 시켜서 등불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82) ㄱ. 這們時，如今教將來。[번호 上 p116:5]

- ㄴ. 이러면 이제 히여곰 가져오게 호마.
- ㄷ. 그럼시다, 지금 가져오게 하겠소.

(83) ㄱ. 教那个伙伴來着。[번호 上 p119:2]

- ㄴ. 더 버들 흐야 오게 흐라.

ㄷ. 그 동무한테 오도록 말해 주시게.

(84) ㄱ. 教那两个起来。[번노 上 p120:4]

ㄴ. 더 들흘 히야 닐에 히려.

ㄷ. 저 두 사람을 깨웁시다.

(85) ㄱ. 教别人看, 要什么教别人看去? [번노 上 p133:5]

ㄴ. 너느 사릅 히려 보게 히려. 므슴호려 다르니 히려 되랴⁵⁸⁾ 가리오?

ㄷ. 다른 사람에게 봐달라고 해? 무엇 때문에 남에게 봐달라고 해야 하는 가?

(86) ㄱ. 教你一日辛苦。[번노 下 p79:8]

ㄴ. 너를 히려 홀 내내 슈고히게 히 과이다.

ㄷ. 자네한테 하루 종일 폐를 끼쳤네.

(87) ㄱ. 肥馬涼者, 瘦馬鞍子摘了, 絆了脚, 草地里撒了, 教吃草。[번노 下 p99:4]

ㄴ. 술진 물란 서늘게 히고, 여원 물란 기르마 밧기고, 밭 지달 쓰고,
기슨 짜해 노하 히려 곰 플 먹게 히고.

ㄷ. 살찐 말은 시원한 바람을 쐬게하고, 여원 말은 안장을 떼어내고
말을 묶어 풀밭에 놓아 주어 풀을 먹게 한다.

(88) ㄱ. 教一个伙伴伺候着時。[번노 下 p101:2]

ㄴ. 히 동모 히려 보습퍼 디후히게 히려.

ㄷ. 다른 하인에게 보살필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예문(78)~(88)의 번역문(ㄴ)에서 모두 ‘...히려/히려곰/히려/히야/히야곰’...

58) 되다: 보이다, 주 50 참조.

-게 하다'의 표현이 나온다. 이는 모두 '-하여금...-게 하다'의 뜻을 의미한다. (78)~(88)의 원문(ㄱ) 중국어에서 모두 전치사 '敎'자에 의하여 구성된 '敎'자 사동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의 번역문(ㄴ)에서 '-하여금'은 '敎'자를 번역한 것이고, '-게 하다'는 통사적 사동을 의미한다. '-하여금'은 없이 '-게 하다'를 바로 번역하여도 의미상 문제가 없지만 전치사'敎'자를 '하여금'으로 더 해석하였던 것이다.

(89) ㄱ. 羞兩個看行李。[번노 上 p96:8]

ㄴ. 둘홀 햐 짐 보게 햐고.

ㄷ. 두 사람은 짐을 보고.

(90) ㄱ. 却着這裏的兩個，替換回來。[번노 上 p117:1]

ㄴ. 밤쑹만 다듣거든 또 옛 둘홀 햐 그라 도라오게 햐.

ㄷ. 한밤중이 되면 여기 있던 둘이 교대해서 돌아 가고.

(91) ㄱ. 羞兩個后頭趕將頭口來。[번노 上 p135:5]

ㄴ. 둘흐란 햐 뒤헤 즘송 모라오게 햐고.

ㄷ. 두 사람은 나중에 말을 몰고 오도록 하게.

예문(89)~(91)의 번역문(ㄴ)을 보면 또한 모두 '-하여금...-게 하다'의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예문(89)~(91)의 원문(ㄱ) 중국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89.ㄱ)~(91.ㄱ)는 모두 전치사 '着'자에 의하여 구성된 '着'자 사동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에 나타난 '敎'자문과 같이 번역문(ㄴ)에서 '-하여금'은 '着'자의 번역으로, '-게 하다'는 통사적 사동을 의미한다. '-하여금'은 없이 '-게

59) 햐/햐여/햐야-곰/햐여-곰: 부, 하여금. 모두 '햐야곰 령 (使令)'을 말한다.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7)ㄱ~ㅎ』, 학고방, 618-619쪽 참조.

하다'를 바로 번역하여도 의미상 문제가 없지만 사동 표지인 전치사 '着'자를 '하여금'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1.3. 'NP+하야(-시키다)+VP'의 사동양상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에서 나온 'NP+하야(-시키다)+VP'의 사동'을 다음 표와 같이 중국어원문과 분리해서 정리하였다.

중국어원문	사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사동 여부
敎当值的學生，將簽筒來搖動。 [번노 上 p11:5]	○	딕실선비 <u>하야</u> 사슬통 가져다가 흔드려.	○
撤着誰的，便着那人背書。 [번노 上 p11:8]	○	그 등에 <u>하</u> 나 빼혀, 빼혀니 뉘고 <u>하야</u> , 믄득 그 사름 <u>하야</u> 글 외오요디.	○
你的爺娘敎你學來? 是我爺娘敎我學來。 [번노 上 p15:4]	○	네 아버지 너를 <u>하야</u> 비호라 하시느녀? 우리 아버지 나를 <u>하야</u> 비호라 하시는다.	○
差了一百个壯漢，將着弓箭器械，把那賊圍在一个山峪里。 [번노 上 p63:6]	○	장한 사름 일백을 시켜, 화살 연장 가지고 그 도즈글 <u>하</u> 고래 <u>에워</u> .	△
羞這老的看着。 [번노 上 p71:8]	○	이 늙그니 <u>하야</u> 보라 <u>하야</u> 라.	○
敎我那里尋宿處去? [번노 上 p102:1]	○	우리를 <u>하야</u> 어디 가 잘 디 어드라 가라 <u>하</u> 느뇨?	×
我着孩儿們做將粥來與你喫。 [번노 上 p114:1]	○	내 아히들 <u>하야</u> 죽 <u>하야</u> 가져다가 너희 주워 머규마.	○
羞兩個趕着馬那里放去。 [번노 上 p115:6]	○	둘흘 <u>하야</u> 몰 모라 게다가 노 <u>하</u> 라 가라.	△
先羞兩個放馬去。 [번노 上 p116:8]	○	몬져 둘흘 <u>하야</u> 몰노 <u>하</u> 라 보내오.	△
你羞一个伙伴跟我去。 [번노 下 p46:2]	○	네 <u>하</u> 번 <u>하야</u> 날 조차가.	○
敎人看了面子上的角，背子上鋪的扃。[번노 下 p72:3]	○	사르모로 <u>하야</u> 面子에 올인 썰와 등 우회 싣문힘 <u>뵈오</u> .	○

<표 13>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NP+하야(-시키다)+VP'의 사동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을 보면 또 한 가지의 사동 표현이 보인다. 바로 ‘-
히려/히려’ 즉, ‘-하여금’에 의한 실현되는 사동이다.

(92) ㄱ. 敎當值的學生，將簽筒來搖動。[번노 上 p11:5]

ㄴ. 덕실선비의 히려 사슬통 가져다가 흔드려.

ㄷ. 그 날 당직 학생을 시켜 제비뽑기 통을 흔들고.

(93) ㄱ. 你的爺娘敎你學來？是我爺娘敎我學來。[번노 上 p15:4]

ㄴ. 네 아버지 너를 히려 빙호라 하시느뇨? 우리 아버지 나를 히려
빙호라 하시느다.

ㄷ. 네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한 것인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공부하
라고 하신 것입니다.

(94) ㄱ. 敎我那里尋宿處去？[번노 上 p102:1]

ㄴ. 우리를 히려 어디 가 잘 더 어드라 가라 하시뇨?

ㄷ. 어디에서 숙소를 찾으란 말씀이십니까?

(95) ㄱ. 敎人看了面子上的角，背子上鋪的肋。[번노 下 p72:3]

ㄴ. 사르모로 히려 面子上에 올인 썰와 등 우희 썩론힘 뵈오.

ㄷ. 먼저 손님에게 활 안쪽의 물소 빨과 등 뒤쪽에 붙인 쇠 힘줄을
보여주고.

예문(92)~(95)의 원문(ㄱ) 중국어는 모두 사동표지인 전치사 ‘敎’자로 만드
는 사동구문을 볼 수 있다. 번역문(ㄴ)을 보면 전치사 ‘敎’자를 다 ‘-히려’로
즉 ‘-하여금’의 뜻인데 ‘하야금 령’에 의한 사동을 해석하였고, (92 ㄴ)~(95
ㄴ)는 모두 ‘-히려’ 즉 ‘-하여금/-시키다’에 의하여 사동이 된다고 본다.

(96) ㄱ. 撤着誰的, 便着那人背書. [번노 上 p11:8]

ㄴ. 그 둥에 하나 빼혀, 빼혀니 넉고 호야, 문득 그 사람 호야 글 외오요디.

ㄷ. 그 제비 뽑힌 사람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97) ㄱ. 羞這老的看着. [번노 上 p71:8]

ㄴ. 이 늘그니 호야 보라 호야라.

ㄷ. 나이 많은 분에게 방보기를 부탁하세.

(98) ㄱ. 我着孩兒們做將粥來與你喫. [번노 上 p114:1]

ㄴ. 내 아히들 호야 죽 호야 가져다가 너희 주워 머규마.

ㄷ. 나는 애들을 시켜서 당신들이 먹을 죽을 만들어 오게 하겠소.

(99) ㄱ. 着兩個趕着馬那里放去. [번노 上 p115:6]

ㄴ. 둘홀 호야 몰 모라 게다가 노호라 가라.

ㄷ. 두 사람이 말을 끌고 가서 거기다가 풀어두어.

(100) ㄱ. 先着兩個放馬去. [번노 上 p116:8]

ㄴ. 먼저 둘홀 호야 몰노호라 보내오.

ㄷ. 두 사람은 먼저 말을 풀어주러 가시오.

(101) ㄱ. 文契着誰寫? [번노 下 p39:3]

ㄴ. 글위를 놀 호야 쓰이료?

ㄷ.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102) ㄱ. 你着一个伙伴跟我去. [번노 下 p46:2]

ㄴ. 네 흔 번호야 날 조차가.

ㄷ. 동행 가운데 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게 하여.

예문 (96)~(102)들의 원문(ㄱ) 중국어는 모두 사동 표지인 전치사 '着'자로 만드는 사동구문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번역문(ㄴ)을 보면 전치사 '着'자를 다 '-히려'를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96)~(102)들의 번역문 (ㄴ)은 모두 '-히려' 즉 '-하여금/-시키다'에 의하여 사동이 된다.

(103) ㄱ. 差了一百个壯漢, 將着弓箭器械, 把那賊圍在一个山峪里. [번노上 p63:6]

ㄴ. 장한 사람 일백을 시켜, 화살 연장 가지고 그 도즈글 혼 고래 에워.

ㄷ. 백 명이나 되는 건장한 젊은이를 징발하여 활과 화살, 그리고 무기를 갖추게 하고 강도를 한 산골짜기에 둘러싸서 겨우 붙잡아 왔습니다.

예문(103.ㄱ)의 '把那賊圍在一个山峪里'는 '그 강도를 한 산골짜기에 둘러싸게 하고'의 뜻이고 사동 표지인 '把'자로 인한 실현되는 사동구문이다. (103.ㄴ)에 '에우다'⁶⁰⁾는 '에다'⁶¹⁾에 접미사 '-우-'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사가 아니었고 '에우다'는 '둘러싸다, 포위하다'의 뜻이고 (103.ㄴ)는 파생적 사동이 아니라 단지 서술형 문장이다.' (103.ㄴ)에서 '-시키다'가 있는데 이는 원문의 '差'자를 번역한 것이다. '差'자는 원래 '시키다, 명령하다'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103.ㄴ)은 형태적 사동이 아니지만 명령문으로서 의미상 사동을 볼 수 있다.

60) 에우다: 동사, 1.긋다, 지우다, 삭제하다, 2. 에우다, 가리다, 막다, 3. 둘러싸다, 포위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965쪽.

61) 에다: 예리한 날 따위로 도려내듯 베다. '엇+이(사동 접사)+다'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어히다'이며, 현대국어의 '베다'에 해당된다. 『한국어 어원사전』 (2012), 김무림,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570쪽.

2.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특징

원문 중국어에서는 사동 표현이 되고 번역문에서는 사동으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문들을 다음 표와 같다.

중국어원문	사동 여부	중세한국어 번역문	사동 여부
那人家見人多時，不肯 <u>教</u> 宿。 [번노 上 p96:7]	○	더 人家 사르미 만흔 주를 보면 즐겨 자게 아니흐리니.	×
休 <u>教</u> 走了氣，自然熟了。[번노 上 p43:4]	○	김 나게 말라, 즈연히 니그리라.	×
休 <u>着</u> 出氣。 [번노 上 p47:2]	○	김 나게 말오.	×
不 <u>教</u> 我宿時。 [번노 上 p98:2]	○	우리를 재디 못흐거든	×
休說你歹我好，朋友的面皮休 <u>教</u> 羞了。[번노 下 p101:9]	○	너 사오나오니 나 어디로니 니르디 말며, 벌비의 늦жат 붓그리게 말라.	×

<표 14> 번역문에서 사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원문의 사동 구문

본 연구 3장에서 제시한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들과 같이 원문 중국어에서 사동 표현이고 번역문에서 사동을 번역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다.

(104) ㄱ. 休着出氣。[번노 上 p47:2]

ㄴ. 김 나게 말오.

ㄷ. 김이 빠져나가지 않게.

(105) ㄱ. 休教走了氣，自然熟了。[번노 上 p43:4]

ㄴ. 김 나게 말라, 즈연히 니그리라.

ㄷ.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세,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익는다네.

(106) ㄱ. 那人家見人多時，不肯教宿。[번노 上 p96:7]

ㄴ. 더 人家 | 사름미 만흔 주를 보면 즐겨⁶²⁾ 자게 아니흐리니.

ㄷ. 저 집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묵게 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르니.

(107) ㄱ. 不教我宿時。[번노 上 p98:2]

ㄴ. 우리를 재디 묻흐거든

ㄷ. 우리르 재우지 못한다면.

(108) ㄱ. 休說你歹我好，朋友的面皮休教羞了。[번노 下 p101:9]

ㄴ. 너 사오나오니 나 어디로니 니르디 ⁶³⁾말며, 번비의 낯갓⁶⁴⁾ 붓그리게 ⁶⁵⁾말라.

ㄷ. '너는 나쁘고 나는 좋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친구의 체면을 잃게 하지 마라.

예문(104)~(108)의 (ㄱ) 중국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4.ㄱ)는 '着'자로 이루는 사동구문이지만 부정한 문장이다. (104.ㄱ)와 같이 (105.ㄱ)~(108.ㄱ)는 '教'로 이루는 사동구문을 볼 수 있지만 또한 부정문이다. 그들의

62) 즐기다: 동사, 1. 즐기다, 동의하다, 수궁하다. 2. 인내하다, 잘 참다, 번거로움을 견디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1295-1296쪽.

63) 니르다: 동사, 1. 이르다, 도착하다, 2. 이르다, 말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86쪽.

64) 낯갓: 명사, 낯가죽 ↔(면피:面皮),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305쪽.

65) 붓그리게-: 형, 부끄러워하다.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641쪽.

번역문(ㄴ)에서 모두 사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서술형 문장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들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았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관계를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유형	중국어원문	중세한국어 번역문
I (원문 사동○ + 번역문 사동○)	어휘적 사동 (사동의 뜻을 가진 동사)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사동표지인 전치사 또는 보조사로 이루는 사동)	통사적 사동
		‘NP+하야(-시키다)+VP’의 사동
II (원문 사동○ + 번역문 사동×)	통사적 사동	사동×
III (원문 사동× + 번역문 사동○)	사동×	파생적 사동

<표 15>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관계

유형I를 보면, 중국어 원문의 사동구문을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분류되었다. 그중에서 예문(43)과 같은 어휘적 사동이 대응하는 중세한국어의 사동유형이 파생적 사동이다. 예문(78)과 예문(98)과 같은 중국어원문의 피동표지가 가진 통사적 사동이 대응하는 중세한국어의 사동유형으로 ‘-게 하다’의 통사적 사동과 ‘-하야(시키다)+ VP’의 사동이 있다.

유형II인 경우 예문 (104~108)과 같다. 중국어원문에는 문장이 사동표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동구문을 간주되었다. 이 예문들이 모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다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부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간혹 피동구문으로 간주하여도 되는 중의성도 있지만 이런 전제로 번거로운 부정적 사

동 문장을 번역하는 것 보다 문장의미를 전달하여 간단한 서술문으로 해석한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유형Ⅲ인 경우 예문(53~56)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는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중국어는 독립어이기 때문이었다. 앞에 설명하였지만 예문(54) '且休摘了鞍子 (안직 기르마 벗기디 말라)'을 보면, 중국어 원문의 어순에는 기르마(안장)는 목적어이고, '벗다'의 동작을 하는 주어(사람)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는 기르마가 앞에 가서 주어가 되고 사동사인 '벗기다'가 서술어가 되어 사동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이 유형Ⅲ에 많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V. 결론

이상에서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들은 중국어원문과 대조하여 중세 한국어자료인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의 양상 및 번역 특징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현대 문법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과 사동의 특징 즉 한·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피동에서 ‘-이/히/리/기-’등 피동 접미사에 의한 이루는 피동, 자동사나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사용되는 ‘-어지다’에 의한 피동, 그리고 ‘되다, 받다, 입다, 당하다’등이 피동적인 의미가 실현되는 피동으로 세 가지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어의 사동은 피동과 같이 ‘-이/히/리/기/우/추/구/애-’등 사동 접미사에 의한 실현된 사동, 그리고 ‘NP+시키다’와 보조동사 ‘-게 하다/만들다’에 의한 만들어진 사동이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형태변화가 없고, 서술어의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구성(피동이나 사동표지인 전치사 혹은 보조사로 만든 사동) 방식에 의하여 피동과 사동이 실현된다.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동작을 받아야만 피동이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어지다’의 피동표현이 없다. 중국어의 피동과 사동구문이 각각 ‘어휘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그리고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사적 피동’이 피동 표지인 전치사 또는 보조사 ‘피(被)’, ‘교(敎)/교’, ‘양(讓)’등에 의한 실현되며 ‘통사적 사동’이 사동표지인 전치사 또는 보조사 ‘파(把)’, ‘사(使)’, ‘교(敎)’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어휘적 피동’과 ‘어휘적 사동’이 서술어인 동사자체가 피동이나 사동의 뜻을 나타내서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과 사동의 이러한 특징들은 『번역노걸대』의 피동과 사동구문에 서도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피동문장들이 ‘파생적 피동(가티다/ 간히다)’, ‘통사적 피동(히야 디다/ 헤어지다)’ 그리고 ‘입다, 당하다(세 번 마조를 니브리라/ 세 번 맞음 님다/입다)’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피동으로 세 유형을 나누어서 중국어 원문과 대조하면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사동구문을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들을 ‘파생적 사동(쉬우다)’, ‘통사적 사동(-게 히다)’ 그리고 ‘NP+히야/ 시키다’에 의한 실현된 사동으로 나누어서 원문과 함께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번역노걸대』의 피동과 사동구문의 번역유형을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어 원문의 피동과 사동구문들을 번역문에서도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둘째, 원문에 피동과 사동구문이었는데 번역문에는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이 안 된 경우이다.

셋째, 원문에 피동과 사동구문이 아니었지만 번역문에서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구문이 현대국어와 같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및 ‘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사동구문도 현대국어와 같이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및 ‘-히야(-시키다)’의 사동으로 분류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문 ‘그 나그내 뽕여 어즐히 앓다가 썩야더니. [번노 上 p62:2]’의 ‘뽕여’는 ‘쏘이다’의 옛말이고 접미사 ‘-이-’에 의한 피동이 된다. 예문 ‘부똥 명성을 더러이면 늑미 춤 받고 꾸지스리라. [번노 下 p105:5]’의 ‘더러이면’은 ‘더럽히다’의 옛말인데 접미사 ‘-이/히-’에 의한 사동이 된다. 『번역노걸대』 시기의 옛말에서부터 이미 ‘-이-, -티/히-,

-리-, -기-'등 접미사로 피동과 사동을 실현된다. 또한 ‘뵈이다’와 ‘더러이면’에는 같은 접사 ‘-이-’로 피동과 사동이 동시 가능하다는 것을 보니 현대국어에서 ‘-이-, -히-, -리-, -기-’ 등의 피·사동접미사가 피동접미사로도 사동접미사로도 쓰인 현상이 예외적이고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어원문과 대조하여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원문의 ‘禁着’과 같은 ‘어휘적 피동’을 번역문에 ‘가티다’로 해석하여 ‘파생적 피동’이 되었다. 또한 번역문에 쓰인 ‘히야 디다’가 ‘통사적 피동’이 되었지만 원문에서는 피동구문이 아니었다. 이는 중국어에서 ‘절로 되는 입음’의 경우는 피동구문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문에 잘 쓰이지 않은 ‘춤 받다’의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는 원문 “唾”자를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침뱉음을 당하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다. 중국어의 피동 표지는 被자가 대표적이다. 피(被)자는 실체사(實體詞)앞에 쓰일 때 ‘介詞(전치사)’가 되고 동사 앞에 놓일 때 피동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된다. 예문 ‘被一个賊到那里見了。 혼 도즈글 맛나 게 와 보고.[번노 上 p58:7]’는 번역문에서는 문장의미를 전달되었지만 피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어 피동구문의 특징은 항상 바라지 않았던 일이나 불유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피동을 잘 쓴다. 한국어 피동구문에는 이런 의미적 특징은 없었다.

중국어원문에 사동 표지인 ‘着’나 ‘教’자를 가진 사동구문을 번역문에서 ‘-게 하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教’자 원래 ‘시키다, 가르치다’의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教’자가 서술어로 쓰인 중국어구문이 번역문에서 간혹 ‘-히야’ 즉 ‘-시키다’의 사동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문의 ‘어휘적 사동(熱手脚)’을 번역문에 ‘파생적 사동(손발 데우다)’으로 해석하였다. 그 외에는 ‘쉬우다’는 ‘쉬다’의 사동사이지만 현대 말에서 ‘쉬다(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의 사동사이고, 『번역노걸대』 안에서는 ‘짐승들을 숨을 쉬게 하다. 호흡을 시키다’의 뜻이었다. 이와 같은 어휘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 현상도 발견하였다. 최세진이 『노걸대』 언해할 때에 양 나라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

여 의역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의 번역특징을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의 전반적인 모습도 살펴 보았다.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피동과 사동의 많은 유형적 특징이 이미 그 시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사전류】

『老乞大諺解辭典』(2009), 박성훈, 태학사.

『필사본 고어대사전』(2010) (1)ㄱ, (2)ㄴ~ㄹ, (3)ㅁ~ㅂ, (4)ㅅ, (5)ㅇ, (6)ㅈ~ㅊ, (7)ㅋ~ㅎ,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교방.

『동아 메이트 국어사전』(2007),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두산동아.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단행본】

고영근·구본관(2010),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2013),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나찬연(2010),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 이론편-』, 교학연구사.

박덕유(2010), 『중세국어문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문사.

배희임(1989), 『국어 피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사.

서정수(1994),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정수(2013), 『국어문법』, 집문당.

이상억(1970),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서울, 집문당.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출판사.

유길준(1909), 『大韓文典』, 同文館(印刷所)

주시경(1946), 『朝鮮語文法』, 正音社.

정광(2010), 『譯註 原本老乞大』, 도서출판 박문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正音社.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黎錦熙(1924), 『新著國語語法』, 湖南教育出版社.

王力(1943), 『中國現代語法』, 山東教育出版社.

王力(1954), 『中國語法理論』, 山東教育出版社.

呂叔湘(194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張志公(1953), 『漢語語法常識』, 中國青年出版社.

繆錦安(1990), 『漢語的語義結構和補語形式』, 上海外語教育出版社.

沈陽何元建·顧陽(2001), 『生成語法理論與漢語語法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陳成澤(1922), 『國文法草創』, 商務印書館.

【학위논문】

권부경(2011), 朝鮮時期 漢語教科書 語法化現象研究-『노걸대』와 『박통사』를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박성중(1984), 「국어 피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박연옥(2012), 「중·한 사동문의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範魯新(2014), 『노걸대』, 『박통사』의 漢語 補語 構造 研究, 서울대학교언어학박사 학위논문.

이병숙(1989), 16, 18세기 국역본의 사동문 연구-『박통사』, 『노걸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금평(2013),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梁伍鎭(1998), 老乞大 朴通事 研究 : 漢語文에 보이는 語彙와 文法の 特徵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성기(1993), “國語 使動詞에 關한 通時的 研究”, 全州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劉性銀(2000), 『노걸대』·『박통사』 語法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주해영(2010), 『노걸대신석언해』의 번역 양상과 특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은진(2000),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金希珍(1999), ‘최세진의 저서해설’, 새국어생활 제9권.

김무식(2003), 번역노걸대의 표기와 음운 연구, 문학과언어연구회.

김형배(1998), 16세기 초기 국어의 사동사 파생과 사동사의 변화-『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4호, 한말연구학회.

김영희(1985), “주어올리기”, 『국어학』 제14권.

----- (1993), “-게 하-’ 사동 구문의 세 유형”, 『어문학』 제54집.

김차균(1980), “국어의 사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제168호.

김일웅(1978), “-이-’ 사역문과 타동문”, 『허웅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김석득(1980), “자리 만듦성(능격성, ergativite)과 시킴월(사동문) 되기 제약”, 『말』 제5집.

김정대(1989), “-게 하다’ 사동구문의 기저구조 I”, 『경남어문논집』 제2집.

----- (1990), “-게 하다’ 사동구문의 기저구조 II”, 『人文論叢』 제2집.

- 김광조(2002), 『노걸대』에 나타난‘장/파’將/把자문의 문법화 연구, 中國中文學, 한국중어중문학회.
- 김영수(2006), 『번역노걸대』의 언어와 번역에 대한 고찰,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김해금(2015), 『노걸대』와 『박통사』에 나타나는 ‘파’罷의 언해 양상 고찰, 人文論叢,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문영(2017), 중세 국어 언해서 번역 특징에 대한 연구-『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와의 대비를 통하여-, 泮矯語文研究, 반교어 문학회.
- 류성기(1988), 19세기 국어의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양규(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제7호.
- 박태권(1981), 『번역노걸대』의 물음법에 대하여, 한글, 한글학회.
- 박태권(1996), 최세진의 『노걸대 언해』 연구, 세종학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한상(1996), 경상도말 피·사동어휘의 운율특징, 대한음성학회.
- 신용권(2012), <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 이순미(2014), 《노걸대(老乞大)》에 보이는 긍정응답어 ‘가지(可知)’ 고찰,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 이광호(1988), “국어의 ‘목적어-주어 동지표문’ 연구”, 『국어학』 제17권, P65~96.
- 양태식(1980), 『번역 노걸대』의 서범소, 釜山水大論文集 25.
- 임홍빈(1978), 「국어 피동화의 의미」, 『진단학보』 45, 진단학회.
- 양동휘(1979), “국어의 피·사동”, 『한글』 166, P189~206.
- 梁伍鎭(1998), 노걸대 (老乞大)· 박통사의 (朴通事) 한어문 성격에 대한

- 연구,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1999), 論元代漢語 <老乞大>의 語言特點, 중국언어연구, 한국중국어학회.
- (2010), 『노걸대』·『박통사』에 보이는 속어의 표현에 대하여, 中國學論叢,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양영희(2003), 『번역박통사』와 『번역노걸대』 바로읽기를 위한 제언, 우리말 글, 우리말글학회.
- 오종갑(1978), 16세기 국어의 Hiatus 회피현상-『번역박통사』와 『번역노걸대』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한민족어문학회.
- 우인혜(1993), 「접미 피동법의 일고찰」,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한국학논집』 25.
- 원효봉·박용진(2011), 고본 『노걸대』의 ‘경’更자 분석 시론, 건지인문학,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장숙영(2011),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문장 구조 연구, 한말연구 제28호, 한말연구학회.
- 조규설(1974), “국어 사동사에 관한 연구”, 『문리대학보(영남대)』 제2권 제2호, P21.
- 조미희(2015), <번역노걸대>의 수량사구 구성연구, 우리말학회.
- 하두진(2015), 漢語 ‘NP1+VP1+得+NP2+VP2’致使句對應的韓語形式, 인문과학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미경(2012), 『노걸대』의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 한재영(2015), <老乞大>類의 종합적 검토(I) : 副詞를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 허성도(1987), 『중간노걸대』에 보이는 중국어 어법에 대한 연구, 東亞文化,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彭向前(2015), 설림(說林) 노걸대의 성립연대 고찰, 중국사 연구, 중국사학회.

郭銳·葉向陽(2001), “致使的類型學和漢語的致使表達”, 第一屆特崗國際漢語語言學 圓桌會議論文(新加坡).

彭利貞(1997), “論使役語義的語形表現”, 『語文研究』 제1호.

陳昌來(2001), “論現代漢語的致使結構”, 『井岡山師範學院學報』 제6호, P28~33.

範曉(2000), “論致使結構”, 『語法研究與探索(10)』, 商務印書館.

Ridel, F. C.(1981). Grammaire Coreenne,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9), 2부19책, 재록.

Shibatani(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1975), “On the Nature of Synonymy in Causative”, Language Research 11-2.

Underwood, H. G.(1890). <한영문법>,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9), 2부11책, 재록.

국문초록

이 논문은 『번역노걸대』의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에 관한 연구이다.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원문과 비교하여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사동의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구문이 현대국어와 같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및 ‘입다, 맞다, 받다’에 의한 피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사동구문도 현대국어와 같이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및 ‘-히야(-시키다)’의 사동으로 분류하였다. 『번역노걸대』의 피동과 사동구문의 번역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어원문의 피동과 사동구문들을 번역문에서도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둘째, 원문에 피동과 사동구문이었는데 번역문에는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이 안 된 경우이다. 셋째, 원문에 피동과 사동구문이 아니었지만 번역문에서 피동과 사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역학자인 최세진이 『노걸대』를 언해할 때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의 언어와 생활을 고려하며 의역한 부분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번역노걸대』의 서지적 정보, 선행연구,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에 대해 논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과 사동 구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피동이 ‘파생적 피동(잡히다)’, ‘통사적 피동(가아 진다)’과 ‘입다, 당하다, 받다’류의 피동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어 피동이 ‘어휘적 피동(治好, 受處分)’과 ‘통사적 피동(‘被’피동, ‘叫/教’피동, ‘讓’피동 등)’ 2가지로 나누었다. 한국어 사동이 ‘파생적 사동(웃기다)’, ‘통사적 사동(-게 하다)’ 그리고 ‘-시키다’의

사동으로 분류된다. 중국어 사동이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2가지 나누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어원문과 중세한국어 번역문을 대조하여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피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번역노걸대』의 피동구문의 번역유형을 3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유형I은 중국어원문에도 번역문에도 모두 피동인 경우, 유형II는 원문에 피동이고 번역문에는 피동이 아닌 경우, 유형III은 원문에 피동이 아니지만 번역문에서 피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원문의 ‘禁着’와 같은 ‘어휘적 피동’을 번역문에서 ‘가티다’로 해석하여 ‘파생적 피동’이 되었다. 그러나 번역문에 쓰인 ‘히야 디다’가 ‘통사적 피동’이 되었지만 원문에 피동구문이 아니었다. 이는 중국어에서 ‘절로 되는 입음’을 피동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어원문과 중세한국어 번역문을 대조하여 『번역노걸대』 번역문의 사동과 원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유형을 이와 같이 3 가지로 분류하였다. 유형I은 중국어원문에도 번역문에도 모두 사동인 경우, 유형II는 원문에 사동이고 번역문에는 사동이 아닌 경우, 유형III은 원문에 사동이 아니지만 번역문에서 사동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따라서 『번역노걸대』의 사동구문의 번역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원문에 사동 표지인 ‘着’나 ‘教’자를 가진 사동 구문을 번역문에 ‘-게 하다’로 해석하였으며 간혹 ‘教’자 사동 표지가 아닌 경우에 ‘시키다, 가르치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쓰인 원문구문들이 번역문에 ‘-히야’ 즉 ‘-시키다’의 사동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원문의 ‘어휘적 사동(熱手脚)’을 번역문에 ‘파생적 사동(손발 데우다)’으로 해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중문초록

本文是關於16世紀著名的漢語學者兼翻譯學家崔世珍所譯文獻『翻譯老乞大』里韓國語譯文的被動和使動用法的研究。通過對『翻譯老乞大』里中世紀韓語翻譯文的被動句和使動句及這些被動句和使動句對應的原文漢語的考察，對『翻譯老乞大』的翻譯特点進行了細致的描述。本文站在現代韓語和漢語文法的角度回顧了『翻譯老乞大』里中世紀時期被動和使動的表現形式，并總結了『翻譯老乞大』的中世紀韓語翻譯文里被動句和使動句的翻譯類型。同時通過對『翻譯老乞大』翻譯文的被動和使動的研究也展示了崔世珍的所著翻譯文獻的翻譯特点。我們現在所熟知和熟悉的韓語文字，韓語語法和文法在中世紀韓國語里也都是可以發現的。只不過經過時間的推移，發音，文字，語法以及文法都有了許多變動，變得越來越利于學習和使用。通過本文對『翻譯老乞大』的研究也可以了解一下在現在的學校里很難看到和學到的中世紀韓國語的文字，語法以及文法。此外，還可以體會到著名的翻譯學家崔世珍對這本書進行翻譯的時候所經歷的心情，他在朝鮮王朝留下了許多珍貴的著作，對這些文獻進行翻譯不僅要熟悉兩國的語言同時要對兩國的風土人情及文化也要有一定的了解，在完全表達原文意思的同時要斟酌如何措辭使翻譯后的句子更簡單通俗便于學習。這些都是很艱難的過程。通過對本文的研究，能幫助現在的人們更加感覺到崔世珍留下的這些文獻是多么珍貴。

本文由以下几部分組成：

在第一章中，首先了解了『翻譯老乞大』的書目信息和有關的先行研究，確定了研究方法和研究主題。

在第二章中，我們討論了現代韓語和漢語中關於被動和使動的概念和在兩種語言里它們的各自特点。我探索了韓國被動與使動的概念，以及中國被動與使動的概念。然後，我舉例說明了韓語被動和使動句的類型以及漢語被動和使動句的類型。

第三章是對『翻譯老乞大』中世紀韓國語翻譯文里被動形式進行的研究。首先對原文漢語和中世紀韓語做了對照，并逐一分析了『翻譯老乞大』里出現的所有被動句。總結了『翻譯老乞大』譯文里被動表現的出現和原文之間的關係。根据第二章中了解的韓語和漢語的關於被動的概念和兩種語言里各自總結的關於被動句的表現特点，考察了『翻譯老乞大』的翻譯文中所出現的被動句的出現原因和特点。同時，考察了一些原文里以被動句出現但翻譯文里并不是被動句的例子。接下來，總結了『翻譯老乞大』翻譯文里被動句的翻譯特点。

第四章是對『翻譯老乞大』中世紀韓國語翻譯文里使動形式進行的研究。首先對原文漢語和中世紀韓語做了對照，并逐一分析了『翻譯老乞大』里出現的所有使動句。總結了『翻譯老乞大』譯文里使動表現的出現和原文之間的關係。根据第二章中了解的韓語和漢語的關於使動的概念和兩種語言里各自總結的關於使動句的表現特点，考察了『翻譯老乞大』的翻譯文中所出現的使動句的出現原因和特点。同時，考察了一些原文里以使動句出現但翻譯文里并不是使動句的例子。接下來，總結了『翻譯老乞大』翻譯文里使動句的翻譯特点。

第五章總結了第一章到第四章的內容，并給出了結論。